

2023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가을의 길목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ACPI)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책의 시대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열악한 아시아 42개국 교회와 교단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국내외 연구원들을 통해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에 기초한 정책들을 플랫폼에 올려  
최적화된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배에 순서를 맡아주시고, 컨퍼런스에 발표와 논평을 맡아주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서울노회와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당회와 교우들께,  
그리고 행사를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9. 16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서대문교회 부설) 대표

장봉생 목사





##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출범과 제1회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전문적인 정책이 이끌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기업이 탁월한 인재들을 모아 R&D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접어든 지구촌의 미래는  
확실한 연구와 탁월한 정책에 의해 판가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교회들에 비해 역사가 짧고 열악한 아시아국가들의 교회와 교단을 돕겠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평소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총회의 정책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신 장봉생목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개혁신학적 기초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살림과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 9. 1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7회 총회장 권순용 목사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1부 예배

인도 연구소 대표 장봉생 목사

예 배 선 언 \_\_\_\_\_ 인 도 자

목 도 \_\_\_\_\_ 다 같 이

사 도 신 경 \_\_\_\_\_ 다 같 이

찬 송 \_\_\_\_\_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_\_\_\_\_ 다 같 이

-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 2.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 하도다 아멘

기 도 \_\_\_\_\_ 당회서기 김영환 장로

성 경 봉 독 \_\_\_\_\_ 사도행전 15장 11절 \_\_\_\_\_ 다 같 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설 교 \_\_\_\_\_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교회 —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찬 송 \_\_\_\_\_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_\_\_\_\_ 다 같 이

- 1.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언도록 잘 인도함이라
- 2.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 3.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을 때 상 받게 하소서
- 4.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 사 \_\_\_\_\_ 미래로함께위원장 김봉수 목사

축 사 \_\_\_\_\_ 전국장로회장 정채혁 장로

광 고 \_\_\_\_\_ 인 도 자

축 도 \_\_\_\_\_ 서영교회 한수환 목사

---

3     **인사말**  
장봉생 목사

5     **축사**  
권순웅 목사

7     **예배순서**

---

**개혁신학적 관점**

12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안인섭

41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에 관한 논평**  
강대훈

---

**목회현장의 관점**

48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이풍인

67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에 관한 논평**  
정명호



---

**선교신학적 관점**

- 74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  
      배춘섭
- 103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에 관한 논평**  
      박진호

---

**실천신학적 관점**

- 114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  
      주종훈
- 137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에 관한 논평**  
      김대혁

---

**공적 영역의 관점**

- 144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  
      김민석
- 165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논평**  
      김은득
- 168   **컨퍼런스 후원 기업**  
      서대문교회 교우  
      대외 후원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개혁신학적 관점

#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Asian Chu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of the Reformed Theology



**안인섭** In-Sub Ahn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ahnkampen@hanmail.net

## <초록>

아시아는 서양에 비해 늦게 근대화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양에 뒤쳐져 있다고 인식되지만,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보아도 세계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도 아시아다. 그러므로 비록 아직도 아시아는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시아 교회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시아신학연맹(ATA)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와 신학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아시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고찰했다. 개혁신학을 종합한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의 이중

의 통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어서 본 발제는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로서, 개혁신학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총신대학교의 국제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1) 아시아 교회는 성경적인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며, (2)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혁주의적인 역동적 대처가 필요하고, (3) 아시아 교회와 개혁 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는 것, 그리고 (4) 아시아 교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 내며 연대하여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향후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ACPI)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 I. 들어가는 글

지난 2016년 7월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약자로 ATA)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당시 ATA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조셉 샤오 박사의 개회 연설은 아시아 교회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교회들은 글로벌 시대 속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시아인지, 아시아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아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라별 종교적 색채가 다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다른 점, 성장이 더딘 이유 등 고민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차례의 ATA 총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의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sup>

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71115>. 2023.8.19. 접속.

아시아는 한마디로 다양성 속에서 이해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양에 비해 늦게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양에 뒤쳐져 있다고 인식된다. 아시아의 기독교 또한 서양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19세기에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광대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몇몇 주요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미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동아시아는 인구가 17억이나 되고 (유럽은 5억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속도와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통일 한국이 국제적인 식량 공급의 허브가 되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롤모델(role model)로서 유럽은 물론 세계 최대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센터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를 꼽고 있다.<sup>2</sup> 경제 및 산업적으로 볼 때도 아시아는 한국과 협력해서 함께 세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보아도 세계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도 아시아다. 비록 아직도 아시아는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향후 인간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더이상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전제는 개혁신학은 현대의 목회현장과 사회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되며,<sup>3</sup> 개혁주의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 중요성이 더욱 심대하게 드러나고 있다.<sup>5</sup>

본 발제는 이상과 같은 아시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가운데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기독교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아시아의 “특수성(Particularity)”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김홍국, “북한 식량문제와 해결방안,” 기조강연 「제1회 북음-평화-통일 컨퍼런스: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기독교통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 공동주최 (노보텔엠베서더 서울 강남 보르도홀, 2019.11.22.), 14.

3 안인섭, “개혁주의의 현대목회적 적용,” 「총회설립 100주년 전국 목사장로대회 자료집」 (수영로교회, 2012.5.14).

4 안인섭, “개혁주의 예배의 전통과 회복,” 「개혁주의 예배회복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지역준비기도회 자료집」 (반야월교회, 2014.4.1./ 한성교회, 2014.4.3./ 광주미문교회, 2014.4.4.).

5 안인섭, “코로나 이후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홍천 소노감 비발디파트, 2012.5.10).

## II.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교회

### 1.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

아시아의 면적은 44,579,000 km<sup>2</sup>로서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아시아에는 총 48개의 독립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전체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아시아를 동쪽에서부터 살펴보면 동아시아(Eastern Asia), 동남아시아(South Eastern Asia), 중앙아시아(Central Asia), 남아시아(Southern Asia), 그리고 서아시아(Western Asia)로 분류된다.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과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그리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속해있다. 동남아시아는 주로 인도차이나반도와 말레이 반도 중심의 국가들이 속해 있는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의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국가들과,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말레이제도 주변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지역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서부의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도 중앙아시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남아시아는 주로 인도와 주변의 국가들이 속해있는데, 인도, 네팔, 부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와 몰디브가 속한다. 서아시아는 서남아시아라고도 불린다. 때로 중동이라고도 불리나, 중동(中東)이라는 말은 북아프리카의 국가들까지도 포함한다. 서아시아는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란이 있으며, 아라비아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예멘 등이 속하고, 그 외에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까지 언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아시아는 그 범위가 광활하고 복잡하며 따라서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 2. 아시아 교회와 신학

아시아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1968년 싱가포르 범아시아 복음주의 회의에서 촉발되어 1970

6 위키백과, 아시아 항목. 2023.8.19. 접속.

년 창립된 아시아신학연맹(ATA)을 통해서 조망하는 것이 비교적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TA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아시아의 신학교들을 인증하는 것을 중심 사역으로 하면서 복음주의 신학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sup>7</sup> 현재 ATA는 아시아 32개국에서 380개의 신학교와 신학 기관이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sup>8</sup> 아시아, 남태평양 및 서아시아(중동)는 물론 유럽과 미국 전역의 흩어진 아시아 기독교 공동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동남아시아의 신학교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ATESEA (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 East Asia)도 있기는 하다. ATESEA는 1957년에 필리핀에서 설립되어 16개국 102개 회원이 속해 있는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도 ATA에 비해 적으며, 신학적으로도 “비판적 아시아 원칙(Critical Asian Principle)”에 근거해서 신학적 갱신과 상황화를 추구하는 다양성이 있다는 면에서,<sup>9</sup>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ATA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ATA는 “복음주의 신앙과 학문에 헌신된” 신학 기관들의 단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킴에 있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선포하고 있다.<sup>10</sup>

ATA의 최근의 관심은 지난 2022년 9월 26-30일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던 ATA 정기 총회의 주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신학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영향, 기회 및 도전 (The Digital Turn in Theological Education: Impac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이었다.”<sup>11</sup> 코로나19 시대를 겪은 직후 아시아 신학교육의 고민과 방향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기존 발제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서론: 디지털 전환의 개요(Introduction: Overview of the Digital Turn)”

“디지털 교육과 영성 형성(Digital Education and Holistic Formation)”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신학(Theology of the Church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증인과 제자도의 전망(The Landscape of Witness and Discipleship in the Digital

7 Joseph Shao,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총신대 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2015년 5월 11-13), 104-121.

8 ATA 홈페이지. <https://www.ataasia.com/membership/> 2023.8.19. 접속.

9 ATESEA 홈페이지. <https://atesea.net/> 2023.9.3. 접속.

10 <https://www.ataasia.com/about-us/> 2023.8.19. 접속.

11 <https://www.ataasia.com/2022ataga/> 2023.9.3. 접속.



Age)”

“디지털 신학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와 상황, 네트워크와 협력(Community and Context,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in Digital Theological Education)”

“디지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혼란인가 갱신인가 발전인가?(A Critical Look at the Digital Age: upset, updates, or upgrade?)”

“디지털 교육의 사례 연구를 통해 배우기(Learning from Digital Education Case Studies)”.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아시아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신학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아시아 교회 정책의 신학적 기초: 하나님 나라 신학

이 장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정책 수립을 위한 보편적인 신학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고찰할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 1.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sup>12</sup> 마지막 메시지는<sup>13</sup> “하나님의 나라”였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sup>14</sup>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 하셨다.<sup>15</sup> 역사적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 사역과 선교의 중심

12 마 4:12-17; 막 1:14-15; 눅 4:14-15.

13 행 1:3.

14 마 19:13-15; 막 10:13; 눅 18:15-17.

15 마 6:9-13.

이자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워낙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마태복음 13장에서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다. 특히 마태복음 13:24~30, 36~43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주인의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결국 추수 때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은 추가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주인의 밭, 즉 세상(코스모스, κόσμος)에서 종말까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가르치셨다.<sup>16</sup>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 성경구절에 근거해서 대작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지속되는 역사를 통해서 전개된다고 장엄하게 밝혔다.<sup>17</sup> 두 개의 도시(duae civitates) 즉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처럼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sup>18</sup> 이 세상(saeculum)에서는 서로 섞여 존재하며<sup>19</sup> 창조부터 종말까지 진행되고 있다.<sup>20</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아시아 교회에 거대한 구조를 갖게 한다. 아시아 교회는 전체 아시아 지역이라는 밭, 즉 세상(코스모스, κόσμος) 속에서, 계속 증가되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 2.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동심원적 구조<sup>21</sup>

### 1)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은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중심으로 향하는 작은 원의 영역에 대항하는 부분이다.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16 마태 13:24~30, 36~43. 어거스틴의 대작 『신국론』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저술된 것이다.

17 G. O'Daly, *Augustine's City of God: A Reader's Guide* (Oxford: Clarendon, 1999), 53-66 그리고 265-272.

18 J. van Oort,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into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s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en: E.J. Brill, 1991), 361.

19 Augustine, *De Civitate Dei*, 1.35.; M. Ruokanen, *Theology of Social Life in Augustine's De civitate De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77.

20 Augustine, *De Civitate Dei*, 15-18권.

21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보시오. 안인섭,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68 (2020): 132-165.; 안인섭, 『종교개혁 역사연구』 (용인: 킹덤북스, 2022), 146-179.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란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sup>22</sup>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정적인 국가나 세상의 제도에서 찾을 수 없다.<sup>23</sup>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직결된다.<sup>24</sup>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 영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참된 교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제도적 기관이나 국가를 의미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sup>25</sup>

## 2)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회

칼빈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인(일시적인) 통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6</sup> 영적인 통치는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계되며, 정치적 통치는 양심이 시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관계된다. 정치적인 통치란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관련된 통치다. 이 둘을 영적인 나라와 정치적인 나라라고 부른다.<sup>27</sup>

칼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야 한

22 I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u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z, E. Reuss, Vol. 2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8), col. 2, cols. 622-623 (*Institutes*, 3.19.15.). "Vulgo appellari solent iurisdictione spiritualis et temporalis, non improprie nominibus." (이하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이하 CO로 표기한다. CO 2, cols. 449-450 (*Institutes*, 3.3.19.). "Regnum Dei annuntiando ad fidem vocabat: siquidem per regnum Dei quod docebat in propinquo esse, remissionem peccatorum, salutem, vitam, et quidquid omnino in Christo assequimur, significabat."

23 CO 2, cols. 1092-1093 (*Institutes*, 4.20.1.). "육신과 영혼을 구별할 줄 알고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으려 거기에 한정하려는 것은 유대적인 허망한 생각이다."

24 CO 2, cols. 771-772 (*Institutes*, 4.2.5.).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흠, 즉,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분명히 깨닫지 못할 것인가?"

25 CO 2, cols. 153-154 (*Institutes*, 1.17.1.).

26 CO 2, cols. 622-623 (*Institutes*, 3.19.15.). "Vulgo appellari solent iurisdictione spiritualis et temporalis, non improprie nominibus." (이하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27 CO 2, col. 623 (*Institutes*, 3.19.15.). "Quibus significatur, priorem illam regiminis speciem ad animae vitam pertinere, hanc autem in his quae praesentis vitae sunt versari: non quidem in pascendo tantum aut vestiendo, sed in praescribendis legibus quibus homo inter homines vitam sancte, honeste modesteque exigat. Nam illa in animo interiori sedem habet; haec autem externos mores duntaxat componit. Alterum vocare nobis liceat regnum spirituale, alteram regnum politicum."

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의 방향이다.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통치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칼빈은 이중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칼빈은 이 두 통치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거스틴과 칼빈 모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이 세상은 사회적 세상이다.<sup>29</sup> 칼빈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했다.<sup>30</sup> 어거스틴이 창조 세계와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는 하나로 혼합되지는 않지만 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이 단순한 자연법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정치 영역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1</sup> 두 왕국 신학은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과 사회적 책임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sup>32</sup>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시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시아의 사회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공적인 사명, 즉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해야 하는데, 동시에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시아 성도들을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들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3)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세계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sup>33</sup>고 강조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전 우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갖는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가장 외부로 팽창하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28 Wolterstorff,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vol 37 (1987): 14-22.

29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10.

30 Plantinga Jr.,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xiii.

31 J. Smith,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서울: IVP, 2017), 258, 259-80.

32 John Bolt, “The Imitation of Christ as Illumination for the Two Kingdoms Debat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8/1 (2013): 6-34.

33 CO 2, col. 667 (*Institutes*, 3.20.42). “Regnum ergo suum erigit Deus totum mundum humiliando”

나라의 현세적 통치와 우주적 주권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34</sup>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시며 보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sup>35</sup>

칼빈은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sup>36</sup> 칼빈은 섭리를 설명하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sup>37</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조정하시며, 따라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한다.<sup>38</sup>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질서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sup>39</sup>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는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구속 사역으로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한다.<sup>40</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1</sup>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를 정해 주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것을 보호하도록 맡기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첫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기술하면서,<sup>42</sup> 고린도전서 주석에서는 인간은

34 CO 2, cols. 667-668 (*Institutes*, 3.20.43.).

35 CO 2, cols. 144-145 (*Institutes*, 1.6.1.). “... nempe ut quem omnium creatorem esse didicit, statim quoque perpetuum moderatorem et conservatorem esse colligat: ... sed singulari quadam providentia unumquodque eorum quae condidit, ad minimum usque passerem, sustinendo, fovendo, curando.”

36 CO 2, cols. 146-147 (*Institutes*, 1.6.3.).

37 CO 2, cols. 147-148 (*Institutes*, 1.16.4.).

38 CO 2, cols. 147-148 (*Institutes*, 1.16.4.).

39 CO 36, cols. 241-243 (*Comm. Is.* 11:6-7).

40 CO 52, cols. 85-86 (*Comm. Col.*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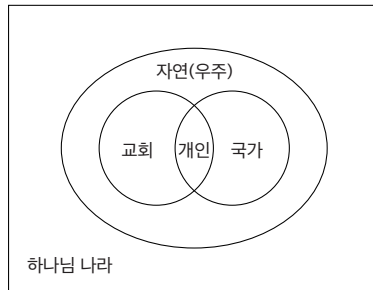
41 CO 2, cols. 148-149 (*Institutes*, 1.16.5.). “Sed quia scimus humani praecipue generis causa mundum esse conditum, in eius etiam gubernatione hie nobis spectandus est finis.”

42 CO 23, cols. 28-29 (*Comm. Gen.* 1:28).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한다.<sup>43</sup> 결국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위임하셨다고 보았던 것이다.<sup>44</sup>

#### 4)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중의 통치에 근거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림1〉 칼빈의 동심원적 구조

칼빈은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과 생명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신정적인 국가나 세상의 제도에서 구하는 것을 배제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되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시킨다.<sup>45</sup>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회적 삶을 살아 간다.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더 확대해서 우주와 창조 세계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해석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굴복시키며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 선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섭리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한계를 정한 후에 인간에게 생명을 보

43 CO 49, cols. 528-529 (Comm. 1. Cor. 15:27).

44 CO 2, col. 157 (Institutes, 1.17.4.).

45 안인섭,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원리,” 『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2009)』 (새에덴교회, 2009.5.12.).

호할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교회 중심의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IV.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개혁주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이번 장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총신대학교가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통해서 실시해 왔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분석하고 그 장점과 단점들을 예리하게 평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총신대가 Refo500 Asia의 코디네이터 대학으로 선정됨 (2010년).

“Refo500”이란 종교개혁 500주년을 나타내는 ‘Reformation 500’의 약자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당시 전 세계 180여개의 파트너 기관들이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끼쳐온 영향을 역사, 신학,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등 측면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협력했다. 파트너 기관들은 각 대학교, 신학교, 교단, 언론기관, 박물관, 출판사, 종교개혁지 답사 여행사 등 매우 다양했다.

총신대학교는 2010년 7월 28일에 Refo500에서 아시아의 대표 기관인 Coordinator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가 종교개혁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국제 조직인 Refo500의 플랫폼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총신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협력 기관들과 종교개혁 정신을 확산시키고 이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젝트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서 신학적인 지평을 넓히고 전파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Refo500 Asia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2010년 7월	총신대학교가 Refo500 Asia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선정됨
2011년 1월	아시아 칼빈학회 및 Refo500 Asia 출범식 (총신대학교)
2011년 5월	Refo500 Asia 설명회 (교육문화회관)
2011년 6월	Refo500 유럽본부 및 파트너 기관 방문
2011년 10월	Refo500 Asia 국제 학술컨퍼런스 (정기컨퍼런스)
2011년 12월	Calvin Exhibition workshop (1st)
2012년 3월	Calvin Exhibition workshop (2nd)
2012년 5월	Refo500 Asia 국제 학술 컨퍼런스 한국교회사학회(학진등재)와 공동주최 정기컨퍼런스 주제: Reformation and Asia
2012년 9월 24일	Refo500 Asia Partner 연석회의
2012년 11월 19일	Refo500 Asia (주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미래) 및 Refo500 Korea 준비위원회 발족
2013년	컨퍼런스
2014년 10월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Refo500 Workshop 주제: Establishment of the Reformed Faith in Asia
2015년 11월	국제학술대회 개혁주의신학과 영성
2016년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al Conference “Reformation 500 in Asia”

## 2. 총회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 개최 (2013년)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해외 개혁교회에 감사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인 개혁신학의 정체성 확신하며, 장로교회 체제를 확신하고, 세계교회가 연대하여 중국과 세계를 개혁주의 중심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세계개혁주의대회가 총신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가 가지는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총회와 총신대가 연합하여 국제적 개혁교회와 함께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때 총신대는 총신대학교가 지향하는 동일한 신앙과 신학사상을 가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지도자들과 교류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sup>46</sup> 이때 총신대학교 출판부는 무려 1057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자료집을 출판했다.

이 세계개혁교회 대회와 자세한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

\* 일정 : 2013. 5. 2(목) - 5. 7(화)

\* 주제 : Revival and Unity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 해외 참가자 및 국내 발제자

1) 해외참가자: 35명 (10개국: 미국 12, 네덜란드 10, 남아공 4, 영국 2, 일본 2, 스위스 1, 독일 1, 벨기에 1, 스리랑카 1, 필리핀 1)

2) 국내발제자: 총신 67명, 타 대학/기관(19) 49명 총 116명 (중복13명 제외 총 103명)

○ 대회 취지

1) 한국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해외 개혁교회에 대한 감사

2)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개혁신학에 대한 확신

3)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바탕에 놓인 장로교회 체제에 대한 확신

4)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개혁교회가 연합하여 세계선교 특히, 중국선교에 힘쓰기로 함

이 대회와 의미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세계개혁교회 네트워크 형성-세계개혁교회의 연합과 연대에 대한 긴급함 해결

2) 쇠퇴하는 듯 보였던 세계개혁교회계를 위해서 한국의 개혁신학이 헌신하도록 함

3)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역사와 비전을 명확하게 함

4) 총신과 합동인 신학자/목회자들이 세계개혁교회의 지도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46 안인섭, "세계개혁교회 연대 모색: 칼빈의 제네바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제5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대명비발디파크, 2013.6.3.) ; 정일웅, "The History of Chongshin University and its educational vision to the world,"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3), 18-27.

### 3. 세계개혁주의연맹 (GRACES) (2014년 이후)

2014년에는 세계개혁주의연맹(그레이시스, GRACES)이 창설되었다. 이 그레이시스(GRACES)는 다음의 영어 이름에서 약자를 사용해서 지어진 것이다. 전체적인 이름은 “신앙고백적 교육자들과 신학교들의 국제적 개혁주의 연맹(Global Reformed Alliance of Confessional Educators and Seminaries)”이 된다. 이 이름을 제안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피터 릴백 총장은 그레이시스란 세계개혁신학 교육의 발전을 공고하게 하면서, 특히 중국 교회의 필요에 따른 신학적 훈련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7</sup>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Mission Statement : GRACES is a global Reformed association of theologians and leaders to create strategies to strengthen missions and Reformed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with a special focus on China.

#### 1) 창설(1회) (2014년)

\* 일정 : 2014. 5. 8(목) - 5. 11(일)

\* 주제 : Global Reformed Mission for the 21st Century and China

○ 해외참가자 및 국내발제자

해외참가자 : 6명

〈표 1〉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1회 학술대회

대륙/국가	이름	소속	주제관련 발제내용
북미/미국	Dr. Jul Medenblik	Calvin Seminary	교회개혁의 관점
북미/미국	Dr. Peter Lillback	Westminster Seminary	언약신학의 관점
International Organization	Dr. Herman Selderhuis	Refo500회장	종교개혁의 관점
유럽/네덜란드	Dr. Roel Kuiper	Kampen/Erasmus	기독교적 정치의 관점
아시아/ATA	Dr. Bong Rin Ro	Hawaii Seminary	아시아선교의 관점
아시아/ATA	Dr. Joseph Shao	Biblical Seminary	아시아의 관점

47 Peter Lillback,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8-27.

○ 대회 취지 및 성과

개혁주의 역사의 특징이 신학을 중심으로 국제적 개혁주의 연대를 형성해 온 점이라면, 현재까지는 모두 유럽과 미국과 남아공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그 흐름이 발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창설된 그레이시스는 그 흐름을 전혀 달리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 특히 중국의 개혁주의화를 위하여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새로운 개혁주의 국제기구의 출범
2. 세계개혁주의의 핵심 리더십과 ATA 리더십을 결속하고 연대해 나감
3. 총신과 우리 교단이 세계개혁주의 진영의 부흥과 일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
4.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개혁교회 진영이 중국선교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매진하기로 함

2) 2회 (2015년, 5월 11-13일)

- 국제기구(Refo500, ATA) 대표, 미국, 화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제적인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대회로서, 그레이시스가 총신이나 한국의 기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임을 상호 확인할 수 있었다.
- 총신대학과 그레이시스가 서양과 아시아를 연결해서 중국의 개혁신학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국제적 플랫폼임이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 승동교회와 안동교회, 윤보선대통령생가, 조선어학회터 답사 등을 통해서 한국 개혁주의가 한국 근대화와 민주주의, 한글발전 그리고 근대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눌 수 있어서 한국 개혁주의 역사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다.
- “그레이시스 성경주석” 출판 프로젝트가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공인되었다. 중앙위원회 위원 총장님들도 적극 협력, 동참하기로 했다.
-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에 인도네시아의 벤자민 인탄박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은 모두 8명이 되었다.

그레이시스의 주요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헤르만 쉘더하우스(Refo500, 화란) / 미국: 피터 릴백 총장(웨신), 메이던블리크 총장(칼빈) / 화란: 룰 카위퍼 총장(캄펜) / 아시아: 조셉 샤오 총장(ATA, 필리핀), 벤자민 인탄 총장

(인도네시아), 안인섭 교수(General Secretary, 한국)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에서는 매 2년(biannually) 국제학술대회(Conference)를 개최하며, 매년(annual)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에서 Steering Committee를 주최하기로 했으며,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3회 (2016년, 5월 9일, 월~11일, 수)

3회의 경우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행사를 주관하므로 국제기관으로서 발돋움 하게 되었다.

1) 일 시 : 2016년 5월 9일(월)~11일(수)

2) 장 소 :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

3) 안 건 : • 국제 개혁주의 운동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함

- 주석 시리즈 출판 프로젝트,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 프로젝트
- 내년 중앙위원회는 11월 6일 주간에 총신에서 개최하기로 함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851-1852

**GRACES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Schedule, 2016**

	May 9	May 10	May 11
9:00-10:00			
10:00-11:00	Greetings, Opening Devotion, Review of GRACES Accomplishments	- Business Meetings - * Strategy Proposal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 Commentary of GRACES	Filming Interviews of GRACES Steering Committee members (w/ Dr. Lillback)
11:00-12:00			
12:00-1:00	Meal	Meal	Meal
1:00-2:00			
2:00-3:00	*GRACES Mission Statement	*Abraham Kuyper Research Project of GRACES	Philadelphia & Valley Forge Tours
3:00-4:00	*Membership Guidelines *Theological Concerns	*Future of GRACES *Next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4:00-5:00	*Discussion of Reformation Celebrations		
5:00-6:00	Extra/Brak	Extra/Brak	
6:00-8:00	Dinner	Dinner	Dinner
8:00	Hotel / Rest	Hotel / Rest	Hotel/Rest

**Hotel Information**  
Hilton Garden Inn  
530 Pennsylvania Ave, Post Washington, PA 19034 USA  
Tel: (215) 646-4637

©2016 Church Board, Oliveville, PA 17058 • www.wts.edu • 215-667-8911 • FAX: 215-667-8494

〈그림 2〉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3회 학술대회

4) 4회 (2017년 11월 6일, 월 ~ 11일, 토)

제4회 GRACES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및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1) 일 시 : 2017년 11월 6일(월) ~ 9일(목)
- (2) 장 소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 총신대학교(사당)
- (3) 주 제 : Remembering and Resignifying 500 years of Reformation
- (4) 주 관 : 총신대학교, Refo500 Korea
- (5) 예상참석인원 : 300 ~ 350여명
- (6) 초청인사

〈표 2〉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4회 학술대회 발제

분과	이름	나라	소속
구역	Willem A. VanGemenen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명예교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신약	David Peterson	호주	Moore Theological College / 교수
조직	John Fesco	미국	WTS (California) / 교수, 교무처장
윤리	Dr. Roel Kuiper	화란	부르더백 / 상원의원
	Benjamin Intan	인도네시아	International Reformed Evangelical Seminary / 총장
역사	Peter Lillback	미국	WTS (Philadelphia) / 총장
	Frank A. James	미국	BTS / 총장
	Henk van den Belt	화란	Groningen / 교수
	Wim Moehn	화란	PThU / 교수
	Herman Selderhuis	화란	Refo 500, Apeldoorn / 대표, 교수
실천	Gerrit Immink	화란	PThU / 명예교수
	Julius Medenblik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 / 총장
	Daniël Louw	남아공	Stellenbosch / 교수
	Karla Apperloo- Boersma	화란	Refo500 / 담당

(7) 일 정

〈표 3〉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4회 학술대회 일정

주관	날짜	장소	내용
총신대학교	11. 6(월)	사당캠퍼스	개회예배, 대학 · 일대원 대상 세미나
	11. 7(화)	양지캠퍼스	4개 그룹, 12회 강연
	11. 8(수)	양지캠퍼스	4개 그룹, 12회 강연
	11. 9(목)	서울경기지역	기독교 유적 답사, 판문점 방문
총신대학교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공동 학회	11. 10(금)	사당캠퍼스	초청인사 주제 강연
	11. 11(토)	사당캠퍼스	초청인사 주제 강연

#### 4. 총신대 신대원 영어 M.Div. 출범 (2015년) / 중국어 M.Div. 출범 (2016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로만 강의하는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개혁신학의 국제화라는 비전이 있었으며, 총신의 국제화 과정에 참여했던 세계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격려와 권면도 한 몫을 했다. 결국 2015년에 글로벌 M.Div.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중국어 M.Div.도 시작하게 되었다.

- 1) 영어 M.Div. 출범-총신대학교 영어 M.Div.를 2015년 3월부터 시작하다.
- 2) 중국어 M.Div. 출범-총신대학교 중국어 M.Div.를 2016년 3월부터 시작하다.

#### 5. 글로벌 도서관의 확립으로 총신대가 아시아권 신학 연구의 허브가 되다. (2016년 3월)

1)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갈보리 신학교(Calvar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소장도서 약 72,000권을 도입하다 (2014년 11월)

- 미국 필라델피아 갈보리신학교가 폐교되면서 귀중 도서 전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도서관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장을 중심으로 Th.M 학위까지 주던 신학교의 도서관이었다. 개혁 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서들이며 미국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 2015학년에 출범하는 영어 M.Div 과정 학생들과 총신 국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문연구에 크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하였다. 2014년 11월 20일 본교 도서관으로 입고했다.

2) 세계적인 칼빈 연구 석학이었던 네덜란드 故 네이언하위스 교수(Prof. Dr. Willem Nijenhuis: 1916-2014)의 희귀본 및 최고급 장서 1200권을 2015년에 구입하다.

3) 따라서 총신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서적은 59만권이며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 2016년 3월 양지 도서관 4층에 7만 여권의 외국어 전문 신학 서적을 소장한 Global Library를 개관했다.<sup>48</sup> 영어/ 중국어 M.Div 과정 학생들의 개혁주의 신학 연구에 도움을 주고 총신 국제화에

48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3> 2023.9.3. 접속.

발맞추어 교수 및 학생들의 깊은 개혁주의적 신학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5) 이런 총신의 국제화의 결과로 총신대학은 2017년 2월 23일에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6. 아시아 신학연맹(ATA) 총회 개최(2016년) 및 총신대가 ATA 이사 학교 선정되다.

ATA에서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를 2016년에 총신대학에서 개최했다. 약 34개국의 300여명이 참가한 국제대회였다. 테레사 루아 박사가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총신대학교가 ATA 이사 신학교가 되면서 ATA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임중앙위원회 선임되었다.

■ 2016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기간 : 2016년 7월 25(월) ~ 29일(금)

장소 :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사당캠퍼스 투어)

주제 : Fixing our Eyes on Jesus

- Asian Churches Pressing On (Hebrews 12:1~2)

주최 :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아시아신학연맹)

주관 : 총신대학교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Triennial General Assembly  
July 25-29 2016, Chongshin University and Seminary, Korea  
Theme: *Fixing our Eyes on Jesus: Asian Churches Pressing On* (Hebrews 12:1-2)

Time/Date	Monday 25 July	Tuesday 26 July	Wed 27 July	Thursday 28 July	Friday 29 July
7:30-8:30	<b>BREAKFAST</b>				
8:30-9:15	<b>Devotions and Prayer Time</b>				
9:15-10:45	CAED Meeting	<b>Session One:</b> <i>God's Abundant Grace in Asia</i>	Business Meeting	<b>Session Three:</b> <i>Christianity in Asia: Missions Perspective</i>	<b>Session Five:</b> <i>TE: Responding to Global and Local Challenges</i>
10:45-11:15	<b>TEA BREAK</b>				
11:15-12:30	AGST Council Meeting	<b>Session Two:</b> <i>Christianity in Asia: Historical Perspective</i>	Business Meeting Academic Societies	<b>Session Four:</b> <i>Challenges in Asia</i>	Panel Discussion (10:45-11:30)  Closing & Communion
12:30-2:00	Board Meeting	<b>LUNCH</b>			
2:00-3:30	<b>Arrival and Registration</b>	Interest Groups	Tour (1:30 onwards)	Interest Groups	<b>DEPARTURE</b>  Tour
3:30-4:00		<b>TEA BREAK</b>		<b>TEA BREAK</b>	
4:00-5:30		Interest Groups		Interest Groups	
6:00-7:00	<b>DINNER</b>	<b>DINNER</b>	<b>DINNER</b>		
7:00-8:30	<b>Opening Night</b> <i>Welcome Address</i> <i>Keynote Address</i>	<b>Book Launching</b> <b>Regional Updates &amp; Prayer Time</b>	<b>Installation Service</b> <b>ATA Night</b>		

<그림 3> 2016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총회는 다섯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에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지역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용기를 공유하게 된다.

두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기독교: 역사적 관점'이며 역사신학적 시각에서 아시아 기독교를 조망하며 오늘의 교회가 배워야 할 점과 답습하지 말아야 할 점을 찾아 본다.

세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기독교: 선교적 관점'으로 아시아의 선교활동 증가와 세계 선교에서의 아시아의 역할을 나눈다.

네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어려움들'로 현재 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한 이슈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에 적합한 메시지를 연구하게 된다.

다섯 번째 세션은 '신학 교육: 글로벌/로컬 도전들에 대응하기'를 주제로 아시아 교회에 필요한 국내외적 협력과 신학교육에 있어서의 리더십 모델을 연구한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선택특강도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기술: 온라인 교육과 학생 데이터베이스 △커리큘럼 영향 평가: ATS 사례 △교회-집 파트 너십을 통한 훈련 △신학교육에 있어서 아시아 선교단체가 서양 선교단체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변화적 리더십 △관계적 제자훈련을 통한 영적인 배가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의 일치 돕기 △민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아시아의 공동체주의 △디아스포라 선교학: 절대적인 21세기 신학교육.

총회 넷째날 저녁에는 '아시아신학연맹의 밤' 행사가 마련됐으며 신임 사무총장 테레사 루아의 취임식이 이루어졌다. 이때 참가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해서 친교를 다졌다. 수요일 오전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ATA 헌법, 회원/인증비 증가, 예산 확정, 지도자 확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목



요일에는 아시아의 종교개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어 종교개혁과 관련한 10여편의 논문도 발표되었다.<sup>49</sup>

ATA 총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과보고

(1) 참석인원 : 약 300여명 (해외 약 200명, 국내 100여명) (cf. 약 34개국)

(2) 총회내용 :

- ATA 신임총장 선출 (Dr. Theresa Lua)

- 총신대학교가 ATA 이사 신학교가 됨 (ATA 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전위원회 창설. 위원장: 총신대 안인섭 교수 선임

(ATA의 재정적인 발전, 학술적 연구기반 확충 등의 업무)

- 총회기간 동안 아시아 교회를 향한 도전과 그것에 응전하며 전망하는 미래라는 구조로 각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됨.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하여 진행함.

## V. 나오는 글

아시아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시아 교회의 정책도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과 아시아라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인구와 교세와 영향력, 그리고 신학적 수준으로 볼 때, 이제는 한국이 그동안 서양 교회와 신학교에서 받은 빛을 갚을 때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은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열매는 무엇인가? 왜 개혁신학과 한국 교회가 서로 연대하여 그 사역을 지속하지

---

49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4>. 2023.8.19. 접속.

못했는가? 그 사역이 아시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다 섬세하고 면밀하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향후 아시아 교회 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 아시아 교회는 성경적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부터 교회를 통한 영적인 통치, 국가를 통한 사회적 삶, 그리고 창조 세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역의 광활한 범주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죄악의 우주성과 타락의 우주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주적인 지평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세계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개혁신학이다. 성경적 개혁신학은 세계 신학 교육을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sup>50</sup>

교회가 개혁신학에 서 있지 않으면 상황화 신학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미신에서 아시아 교회를 방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을 잃게 되고 목회자를 잃게 되어 결국 교회 현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 2.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혁주의적인 역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현대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환경은 날로 급변하고 있다. 교회 자체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혁신학적인 목회자 훈련을 통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sup>51</sup> 더군다나 아시아는 언어와 인종과 문화적 차원에서 역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각 교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과 도전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아시아 각 국가의 신학교육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는 창조세계의 위기는 각 국가와 교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실제로 인도네

50 Peter Lillback,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8-27.

51 Jul Medenblik,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American Churches,"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0-45.

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환경 문제에 기인해서 물에 가라앉고 있으며 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시아신학연맹(ATA)의 사역은 주로 아시아의 신학교들을 인증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극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ATA는 그 성격상 아시아 각 국가의 주요 교단의 교회 현장과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교회들은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아시아 각 국가의 교단들은 교회 지도자 양성하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각 교단은 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엄선하여 총신대 글로벌 M.Div로 파송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총신에서 개혁신학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인턴십을 잘 감당한 후에,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아시아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3. 아시아 교회와 개혁 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

초대 교회 이래로 교회가 걸어왔던 실패의 길들은 대부분 신학은 신학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신학도 변질되고 교회도 타락할 수 밖에 없다. 신학은 사변적인 유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ica ecclesiae)이다. 교회는 신학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학으로부터 방향을 지도받아야 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그 신학은 검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칼빈주의는 신학적 전통들의 네트워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일치성과 다양성의 네트워크(a network of unity and diversity)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세계칼빈학회 회장을 20년간 역임했고 Refo500을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셀더하위스가 한국에서 발표했던 발제문은 큰 울림을 준다.

만약 내가, 칼빈이 교부들, 중세 신학자들, 그와 동시대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열매를 합리적인 사고와 경건의 실천의 조화라고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신학 모델로 끌어들이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하게 들릴 것이다.<sup>52</sup>

52 Herman Selderhuis, "The Calvinist Connection: a Global Network before and after 2017,"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272-289.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과 구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방향에서 교회와 신학은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역사적 개혁주의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4. 아시아 교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 내며 연대하여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총신의 개혁신학과 총회는 아시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적지 않은 귀한 노력들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의 행사에 그친 이유는 구조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이 있어도 한 번의 큰 행사와 이벤트가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린다. 즉 일관성 있게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교회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허브가 부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가 지속적인 연구를 축적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될 것이다.

개혁신학은 고백한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있다. 교회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개혁신학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고 세워진다고 고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된다. 이 교회의 연합은 참된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몸과 영혼,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한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교인들을 의식 있는 시민이 되게 하며 창조세계 보존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개혁신학이 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ugustine, *De Civitate Dei*, 1.35.; M. Ruokanen, *Theology of Social Life in Augustine's De civitate De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77.

Bolt, John. "The Imitation of Christ as Illumination for the Two Kingdoms Debat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8/1, 2013.

Calvinus, I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Baum, E. Reuss, Cunitz, E. Vol. 2.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8.

Lillback, Peter.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Medenblik, Jul.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American Churches."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O'Daly, G. *Augustine's City of God: A Reader's Guide* (Oxford: Clarendon, 1999), 53-66 그리고 265-272.

Plantinga Jr. Cornelius,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Selderhuis, Herman "The Calvinist Connection: a Global Network before and after 2017,"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272-289.

Shao, Joseph.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Smith, J.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서울: IVP, 2017.

Van Oort, J.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into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s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en: E.J. Brill, 1991.

Wolterstorff, Nicholas.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vol 37. 1987.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김홍국. "북한 식량문제와 해결방안." 「제1회 복음-평화-통일 컨퍼런스: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기독교통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 공동주최. 노보텔엠베서더 서울 강남 보르도홀, 2019.11.22.

안인섭.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원리." 「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2009)」. 새에덴교회, 2009.5.12.

\_\_\_\_\_. "개혁주의 예배의 전통과 회복." 「개혁주의 예배회복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지역준비기도회 자료집」. 반야월교회, 2014.4.1./ 한성교회, 2014.4.3./ 광주미문교회, 2014.4.4.

\_\_\_\_\_. "개혁주의의 현대목회적 적용." 「총회설립 100주년 전국 목사장로대회 자료집」. 수영로교회, 2012.5.14.

\_\_\_\_\_. "세계개혁교회 연대 모색: 칼빈의 제네바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제5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대명비발디파크, 2013.6.3.

\_\_\_\_\_.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68. 2020.

\_\_\_\_\_. "코로나 이후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흥천소노감 비발디파크, 2012.5.10.

\_\_\_\_\_. 『종교개혁 역사연구』. 용인: 킹덤북스, 2022.

정일웅. "The History of Chongshin University and its educational vision to the world."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충신대학교 출판부, 2013.

위키백과, 아시아 항목. 2023.8.19. 접속

ATA 홈페이지. <https://www.ataasia.com/membership/> 2023.8.19. 접속.

ATESEA 홈페이지. <https://atesea.net/> 2023.9.3. 접속.

<https://www.ataasia.com/2022ataga/> 2023.9.3. 접속.

<https://www.ataasia.com/about-us/> 2023.8.19.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71115>. 2023.8.19. 접속.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3> 2023.9.3. 접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4>. 2023.8.19. 접속.



## 개혁신학 논평



---

#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에 관한 논평



**강대훈** Dae-Hoon Kang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kangdaehoon@gmail.com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개혁신학에 두면서 아시아 교회를 위한 총신대학교의 시도를 회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평에서는 저자의 논지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자의 회고와 제안이 앞으로의 아시아 교회를 위한 정책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간단히 평가하고자 한다.

## 1. 논문의 전개

먼저 저자는 2장에서 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고 아시아 교회의 신학을 간단히 소개

한다.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아시아신학연맹(ATA)은 아시아 32개국에서 380개의 신학교와 신학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기구로 아시아 교회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자는 3장에서 아시아 교회 정책의 신학적 기초를 “하나님 나라” 신학에 놓는다. 구체적으로 개혁신의적 하나님 나라 신학을 동심원적 구조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이중의 통치에 근거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교회 중심의 나라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밖으로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 구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은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 방향이다. 아시아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부흥은 “아시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아시아 성도들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에 비추어 교회와 국가(또는 정치)의 관계를 설정한 저자의 주장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혼돈을 겪는 아시아 교회의 신학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세계”에 대해 칼빈의 견해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우주는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가장 확장된 영역이다. 흥미롭게도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인간을 위한다(예, 칼빈의 창세기 주석과 고린도전서 주석). 하나님 나라와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해설은 지구온난화와 자연 파괴라는 심각한 현실을 경험하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4부에서 저자는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사례를 개혁주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회고하고 평가한다. 여섯 가지 예는 저자가 실제로 관여한 총신대학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첫째, 총신대는 Refo500(Reformation 500) Asia의 코디네이터 대학으로 선정됐다(2010년). 둘째, 총회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로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를 개최했다(2013년). 이 대회는 총신대가 “동일한 신학사상을 가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 지도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방대한 자료집(1057쪽)을 출간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개혁주의연맹(GRACES - Global Reformed Alliance of Confessional Educators and Seminaries) 대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번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열렸다. 넷째, 총신대 신대원 영어 M.Div. 과정(2015년)과 중국어 M.Div.

과정(2016년)을 시작했다. 다섯째, 글로벌 도서관의 확립으로 총신대가 아시아권 신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됐다(2016년 3월).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17년에는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여섯째, 총신대학교가 아시아 신학연맹(ATA) 총회를 개최하고(2016년) ATA 이사 학교로 선정됐다.

저자는 나오는 말에서 아시아 교회의 미래가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노력을 회고한다. 첫째,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상황화 신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근거다. 둘째,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중시하는 동시에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과 대처가 필요하다. 아시아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안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글로벌 M.Div. 과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 일치성과 다양성의 네트워크를 강조한 칼빈의 신학을 거울로 삼아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저자는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노력이 지속성의 한계를 보인 점을 회고하면서 “일관성 있게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교회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허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 한다.

## 2. 논문의 기여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첫째, 저자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유산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비추어 아시아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아시아 교회는 서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이런 취약성은 정치 불안과 직결된다. 기독교에 매우 적대적인 종교가 서구에 비해 더 강하다(예,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아시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신앙과 사회적 삶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아시아 교회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이 많고 개혁신학 전통이 강한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은 아시아 교회의 현실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학적 분야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위한 제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와 신학을 위한 개혁주의 생태 신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피조 세계의 위기를 몇 차례 언급한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자연재해를 통해 체험하는 현실이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칼빈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그리스도인과 피조 세계 또는 우주의 관계를 동심원 구조로 설명했다. 서구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생태 신학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오고 있다(예, 2012년 영국 틴데일 학회의 Biblical Ecology). 첫 번째 논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개혁주의 관점 또는 성경적 하나님 나라 신학은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아시아 교회에 신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작업이 없어졌거나 약해진 현실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존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일치와 다양성의 관점에서 개혁신학의 보급과 더불어 아시아 교회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아시아 교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교회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문화적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교회가 서구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는 서구 기독교의 약점이면서 성경을 오해하는 문화적 요인인데, 아시아 교회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신학 분과의 학제적 연대도 필요하다.


신학적 제안과 경험적 회고를 중심으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역할을 위해 좋은 자료를 제공한 저자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목회현장의 관점



#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이풍인** Poong-In Lee

개포동교회 Gaepodong Presbyterian Church  
poonginlee@csu.ac.kr

## <초록>

한국교회가 아시아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가까이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 물론 한국의 많은 선교사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서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복음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의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이 없다.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줄어드는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선교 현장을 현지인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그들로 힘있게 섬길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개개의 현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아시아 교회를 함께 섬기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중 연합 사역 모델로 우분트선교



회를 소개한다.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중국 기독교실업인들이 담당하고 목회와 제자 양육은 경험 있는 한국의 담임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맡는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다양한 연합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가 복음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길 기대한다.

## 1. 들어가며

이 주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결정하면서 가진 생각 중 하나는 '내가 아시아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아시아 교회'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꽤 근거리에서 보았던 미국교회나 영국교회에 비해 아시아 교회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나에게 국한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시아 교회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교회사 과목을 공부할 때도 대체로 서양 국가들에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고 확장되었는지에 대해 주로 배웠지 아시아 교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필자의 신대원 시절을 회상해 보아도 '아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없다.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방문하거나 교회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많았지만, 그것 또한 지극히 제한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거 파송된 나라들이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

이런 현실에서 서대문교회가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아시아 교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목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아시아 선교와 아시아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러한 파트너쉽을 생각했을 때 어떤 모델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꽤 오랜 기간 필자가 이사로 몸담아 온 우분

트선교회의 모델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시아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간략하게 살피고, 이어 한국교회 선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파트너십의 한 모델로 우분트선교회를 소개함으로 이론이 아닌 목회 현장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부각시키고자 한다.

## 2. 한국교회와 아시아 선교

서구 교회들은 아시아 교회와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왔다.<sup>1</sup> 아시아에 속한 한국교회보다 아시아 다른 지역의 선교와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아시아 교회와 선교에 무관심했던 이유를 안교성 교수는 세 가지로 든다. 첫째, 자기와 가까운 것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다. 둘째, 아시아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서구지향성이 있다. 셋째, 아시아 교회의 자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sup>2</sup>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운 한국교회가 낮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선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

1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A Study in Four Provinces*. London: Robert Scott, 1912; Anderson, Rufus. *Foreign Missions: Their Relations and Claims*, 3rd ed. Boston: Congregational Pub. Society, 1874; Bays, Daniel H., ed. *Christianity in Chin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Bohr, Paul Richard. *Famine in China and the Missionary: Timothy Richard as Relief Administrator and Advocate of National Reform, 1876-188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Brockey, Liam Matthew. *Journey to the East: The Jesuit Mission to China, 1579-172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Charbonnier, Jean-Pierre. *Christians in China, A.D. 600 to 2000*. San Francisco: Ignatius, 2008. Clark, Allen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Gillman, Ian, and Hans-Joachim Klimkeit. *Christians in Asia Before 1500*.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Harrison, Brian. *Waiting for China: The Anglo Chinese College at Malacca, 1818-1843, and Early Nineteenth-Century Mission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79; Koschorke, Klaus, Frieder Ludwig, and Mariano Delgado, eds.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1450-1990*. Grand Rapids: Eerdmans, 2007; Lumsdaine, David H. *Evangelical Christianity and Democracy in Asia*. Oxford: 2009; Standaert, Nicholas. *Handbook of Christianity in China, Vol. 1, 35-1800*. Amsterdam: Brill Academic, 2000; Sunquist, Scott W., *Explorations in Asian Christianity: History, Theology, and Mission*. Downers Grove: IVP, 2017. 스캇 선취스트의 책은 『아시아 기독교 탐구: 역사, 신학, 선교』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2 안교성, 『아시아 신학 산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22-23.

## 2.1.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2022년 10월호 『목회와 신학』에서 심층 기획으로 “한국교회와 아시아 선교”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안교성, 안승호, 변창욱, 전철영, 전호진, 그리고 진기영 총 여섯 명이 쉽지만 깊게 있게 관련 주제에 대해 잘 다루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안교성 교수는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나 아시아와 아시아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아시아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분명치 않다.”<sup>3</sup>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지역교회 목사이자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동의되는 말이다. 이것이 아시아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는 현실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라는 거시적인 맥락과 한국이라는 미시적 맥락은 인식하면서도, 아시아라는 중간적 맥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sup>4</sup>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선교는 서구 선교를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선교의 한국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생겨났다.<sup>5</sup>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교성 교수는 아시아 교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시아 교회의 탄생은 근현대 서구 선교 운동에 기인하고 있어 그 역사가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했다.<sup>6</sup> 실제로 아시아 지역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독교는 성장과 쇠퇴를 경험해왔고, 동방 시리아 정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순서로 다양한 선교 세력이 등장했다.<sup>7</sup> 아시아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인 다인종 국가적 현실과 그로 인한 다양한 종교의 혼재와 가난의 문제는 아시아 선교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8</sup>

3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28.

4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28.

5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28.

6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28-129. 스킷 선퀴스트는 그의 책, 『아시아 기독교 탐구』의 서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반기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27). 아시아 선교의 역사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의 발상지이며,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다.

7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29-134.

8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134.

## 2.2.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

영남신학대학교 안승오 교수는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2021년 세계 인구가 약 79억 5천만 명인데, 그 중 아시아 인구는 48억 명으로 48%에 해당하지만, 복음화율은 10% 내외라고 말한다.<sup>9</sup> 대륙 간 비교에서 가장 낮은 기독교인 비율을 보이는 아시아 대륙을 향해 소망과 비관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기에, 아시아 나라들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며 선교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 선교 신학을 토착 문화 중시, 정치적 해방 중시, 그리고 종교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중시하는 신학으로 묘사한다.<sup>10</sup>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선교 신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세상에 흡수 통합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한다.<sup>11</sup>

## 2.3. 아시아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개발과 이양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글을 통해서 아시아 기독교와 아시아 선교 신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필자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온 부분을 장로회신학교 선교 역사 교수인 변창욱의 “아시아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개발과 이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와 여러 기관을 설립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였다. 오늘날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학교,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의 리더십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더십 교체는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의 후원 아래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 신학교, 그리고 학교들을 어느 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잘 이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의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그 나라 사람과 정서를 잘 아는 현지인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토대 위에 더 좋은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있고, 자연히 선교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창욱 교수는 선교의 쇠퇴를 수치로 소개하며,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리더십을 넘겨

9 안승오,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 136.

10 안승오,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 137-139.

11 안승오,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 141.

주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선교지 자립 교회 설립을 위한 제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sup>12</sup> 이상 아홉 가지 제언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자립 교회 설립에 성공하려면, 중류층 하층부나 하류층 상층부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다.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선교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물론 그들 중에는 한센인이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펼친 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극빈층을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중류층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는 어떤가? 변창욱 교수의 제언처럼 중류층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선교사들이 접근이 쉬운 하류층 선교에 집중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상류층과 중류층을 포괄하는 선교 거점 형성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더 힘을 잃기 전에 힘써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국교회가 우리의 파트너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우분트선교회’에 대한 소개를 통해 현재 아시아 선교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4. 동북아시아의 종교 이해와 선교 현황 및 전략

GMS 선교사무총장 전철영 목사는 “동북아시아의 종교 이해와 선교 현황 및 전략”에서 중국과 일본 문화에 대해 다룬다.<sup>13</sup> 아시아 선교와 관련해서 서구 교회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sup>14</sup>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12 변창욱 교수는 아홉 가지를 제안한다. a. 현지 교회의 자립에 대한 확신, b. 선교지에서 시작부터 자립 원칙 교수, c. 가난이 자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 버리기, d. 지원받은 교회로 연약한 교회를 지원하게 하기, e. 자립 교회를 만들려면, 중류층 하층부나 하류층 상층부를 공략하기, f. 선교사가 모든 책임을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g. 이양을 고려하여 현지인이 운영 가능한 규모의 시설과 교회 세우기, h. 자립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독려하기, i. 선교지 상황과 여건에 맞춘 자립 방안 모색이다.

13 전철영, “동북아시아의 종교 이해와 선교 현황 및 전략,” 148-153.

14 중국교회 역사에 대해 알기 원하면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김병태, “한국에서의 아시아기독교사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37 (2014), 9-23; 김영호, “선교중국을 위한 중국교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선교와 신학』 37 (2015), 175-204; 홍강, “중국교회의 현주소와 중국선교: 중국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3 (2021), 489-518; 안희열, “중국 도시 가정교회의 개척과 전망,” 『복음과 선교』 23 (2013), 123-153; 설충수, “새 시대를 여는 중국기독교의 사명과 방향 모색,” 『한국기독교문화연구』 7 (2015), 137-159; 김홍수 & 안교성 공저, 『잊혀진 우리 이야기, 아시아 기독교 역사』 (논산: 대장간, 2021) 중 33-50에 수록된 “중국기독교 1, 2”;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영문, 2016 3쇄), 159-180를 보라. 특히 장로회신학대학교 제3회 국제학술회의 결과물로 나온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서울: 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3)은 중국 신학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중국교회에 대해 말하게 하는 귀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장시창, 광쥘린, 공정동, 장가이엔, 수더치, 중지방, 간빠오펑, 린옌리 교수의 글을 통해 중국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인해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이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교회 관련 내용은 글의 전개상 “4.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 이 단락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중국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일본 교회<sup>15</sup>는 답보 상태에 있다.

## 2.5. 동남아시아 선교의 과거와 현재

전호진 교수는 “동남아시아 선교의 과거와 현재”라는 글에서 동남아시아 문화와 종교, 선교 역사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 박해에 대해 다룬다.<sup>16</sup> 전호진 교수는 공산권 나라들이 많고, 다종교적 현상과 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이 선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지역에서 줄곧 있었고, 한국교회는 동남아시아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고 피력한다.

## 2.6.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

인도유니온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진기영은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에서 14억 인도 인구 중 2.3%, 즉 32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본다.<sup>17</sup> 뿌리 깊은 힌두교 종교문화의 기반 위에서 카스트 제도는 자유로운 선교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제까지 인도 교회나 한인 선교사들은 가난한 하층 카스트에 초점을 두었는데,<sup>18</sup> 미래 선교전략으로 교육 받은 중산층과 상층 카스트를 겨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한다.<sup>19</sup> 물론 이 일은 말같이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선교사의 완벽한 언어 구사력이 전제가 되고 그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것을 선교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15 일본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김병태, “한국에서의 아시아기독교사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37 (2014), 23-27;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81-213; 김홍수 & 안교성 공저, 『잊혀진 우리 이야기, 아시아 기독교 역사』, 51-59; 안교성, 『아시아 신학 산책』, 75-88. 전호진 교수는 일본 기독교에 대해 다루며 제목을 “경제 대국 일본, 기독교 소국 일본”이라고 붙였다(『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81-213).

16 전호진, “동남아시아 선교의 과거와 현재,” 154-159.

17 진기영,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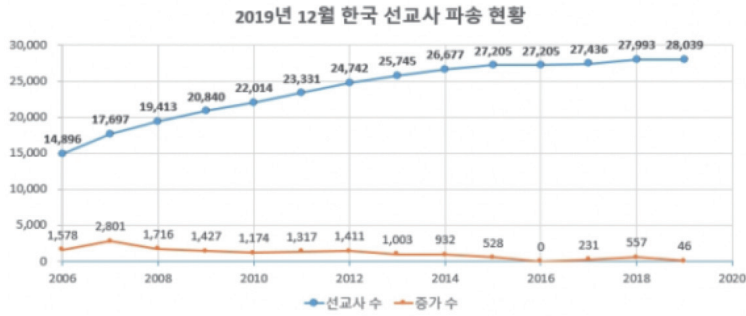
18 진기영,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 164.

19 진기영,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 165.

목회와 신학에서 다룬 여섯 편의 글을 통해 아시아 선교와 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살필 수 있었다. 정리하면, 중국이 교회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아시아 선교는 주로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나라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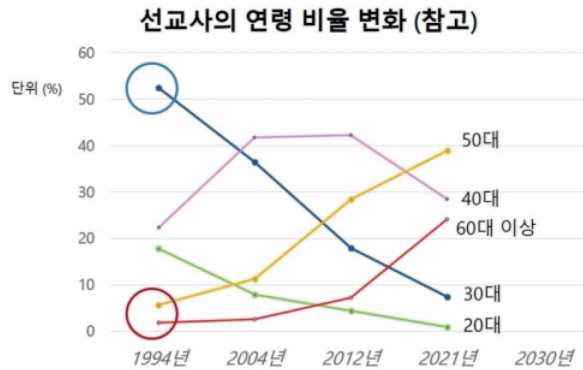
### 3. 한국교회 선교의 과거와 현재

지난 20-30년 동안 아시아 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섬김의 기회를 잘 감당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눈부신 발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성했고 선교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다. 교회 성장의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서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한국교회가 항상 성장 발전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한 쇠퇴기가 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미나나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시는 필자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서구 교회는 쇠퇴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뜨겁게 성장하는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한국교회가 그들의 말을 좀 더 귀담아들었다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것인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다. 통계표를 펴지 않아도 피부로 느낀다. 1970-80년대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쳐났던 때와는 대조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오늘날은 초등학교 한 반에 한 명 정도의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 정도이다. 초등학생 복음화율 3-5%라는 믿기 힘든 현실에 한국교회는 직면하고 있다.



〈그림 1〉 2019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한국교회 부흥기에 선교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졌다. 교회마다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새롭게 파송되는 선교사 수는 급격히 줄고 있고, 그에 반해 은퇴하는 선교사 수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위의 그래프<sup>20</sup>를 보면 2007년 2,801명의 선교사가 증가될 정도로 매년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후로 2016년에 0명, 2019년에는 46명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하는 한인 선교사 수가 매년 8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당연히 선교사 수는 격감할 것이고,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선교 현장을 이어서 사역할 한인 선교사를 찾는 것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현지인 사역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 선교사의 연령 비율 변화

20 KWMA가 2019년 선교통계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고, 선교신문 2020년 1월 14일자에서 “한국 선교사 작년보다 46명 증가...은퇴 선교사는 2년 연속 800명 대”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https://missionnews.co.kr/news/581786>; 2023.9.3. 접속).



선교사의 연령 비율 변화표<sup>21</sup>를 보면, 매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장기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가 39%, 60대가 21.24%이다. 50대 이상이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40대 이하 선교사 비율은 40%가 되지 않는다. 20-40대 선교사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교단 GMS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한 해 신규 선교사로 파송되는 수는 10-20명이라고 한다.

### 장기선교사의 연령 분포

연령 분포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비율(%)	0.95	7.44	28.45	39.00	21.24	2.92
선교사(명)	212	1,653	6,319	8,661	4,717	648

〈그림 3〉 장기선교사의 연령 분포

위의 표는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표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보내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타올라 복음화율이 낮은 아시아 나라들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는 해외선교사 파송 국가 중에서 수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2위에 오르면서 맹활약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복음화율은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불과 30-40년이 지나서 해외선교사 파송 규모에서 2위에 올랐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었던 한국이 50-60년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기염을 토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피부에 와닿도록 풀어 설명하면, 초등학교 25명으로 구성된 한 학급에서 예수 믿는 학생은 고작해야 1명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영국교회 모델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1 이것은 홍현철 KRIM 원장이 2022년 한국선교현황 통계 보고서 사용한 것을 선교신문에서 기사로 다루었다. “2022년 한국 선교사 169개국 22,204명… ‘젊은 선교사 줄고, 평균연령 53.1세로 상승’” 선교신문 2023년 2월 21일 (<https://missionnews.co.kr/news/584152>; 접속일 2023.9.3.).

#### 4.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앞에서 우리는 통계를 통해 한국인 선교사 수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교회의 경우는 모호한 면이 있다. 중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국교회가 어떤 규모로 성장해 왔는지, 현재 중국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내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성도 수가 얼마인지, 신학교와 선교사 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22</sup> 우리는 흔히 중국의 정확한 인구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넓은 영토의 특성상 단기간에 인구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아기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더 어려운 것이 기독교인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중국 내에서 완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삼자교회 외에도 많은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삼자교회의 경우와 지하교회는 정치적인 입장과 신학적인 성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대립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 4.1.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삼자교회의 경우는 친정부적이나 가정교회는 반정부적인 성향을 띤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기 된 것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때 소련을 지지하던 무신론 공산당이 친미적인 성향을 띤던 기독교 배경의 국민당보다 우세했다. 이어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던 대부분의 중국교회인 삼자교회는 반서양, 친정부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반정부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소수의 목회자들은 정부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점차 가정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sup>23</sup> 대표적 목회자로는 왕밍따오와 위치만니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했고, 이 일로 인해 친정부적 성향을 띤 목회자와 반정부적 입장을 띤 목회자들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sup>24</sup>

22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사상』 638 (2012), 96.

23 홍강, “중국교회의 현주소와 중국선교,” 495.

24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97.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우야오종이 중심이 된 친정부적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된 신학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왕밍따오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계열의 반정부 교회들은 삼자교회와 더 명확한 선을 긋고 분리하였다.<sup>25</sup> 1960-7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 내 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불문하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국교회를 다시 세울 때<sup>26</sup> 1950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며 친정부 삼자교회와 반정부 가정교회로 급속히 분리되었다. 이후로 이 둘 사이는 신학과 국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대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sup>27</sup> 흥미로운 것은 1960-70년대 박해 기간 동안에 가정교회는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채 성장했다. 1980년대 교회가 개방되고 재건될 때 가정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자교회의 경우는 가정교회만큼 급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sup>28</sup>

현재 삼자교회의 경우는 농촌에 기반을 둔 교회의 비율이 70%일 정도로 농촌 기반 성향이 강하다.<sup>29</sup>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도시화 현상이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가정교회의 경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비율이 높다. 이전 시대 중국 교회에는 삼다(三多; 여자, 노인, 문맹)가 많았다. 그러나 도시화의 촉진과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청년층과 전문 지식인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가정교회가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31</sup>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로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성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재정적인 헌신을 통해 다른 교회를 돕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sup>32</sup> 앞으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시아선교를 감당할 때 더 적절한 파트너는 가정교회인 것 같다. 물론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자교회와의 관계

25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97.

26 1979년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가 정제된 것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종교활동의 자유와 공개화를 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36조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말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신앙 혹은 불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국가는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982년 3월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 종교 문제에 대한 기본관점 및 기본정책>이라는 "19호 문건"의 발표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종교는 사회주의 사회와 화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설충수, "새 시대를 여는 중국기독교의 사명과 방향 모색," 141).

27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97-98.

28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98.

29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98.

30 설충수, "새 시대를 여는 중국기독교의 사명과 방향 모색," 147.

31 안희열, "중국 도시 가정교회의 개척과 전망," 124.

32 안희열, "중국 도시 가정교회의 개척과 전망," 139.

를 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협력 관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다. 신학적인 면이나 기독교 순수성을 고려하면 가정교회와의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IA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 비율이 5.1%로 7,000만 명 정도로 본다. 2010년 WEC 발표에서는 기독교인 9,100만 명, 가톨릭 신도가 4,600만 명이라고 한다.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국가가 공인한 삼자교회를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 가정교회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중국기독교삼자애국위원회 부주석 왕준은 전체성도수가 2,5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2015.4.16.). 그러나 가정교회 성도수를 고려하면, 9,000만 명에서 1억 4,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퍼듀대학교 양평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국교회는 매년 10%정도 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1억 6,0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33</sup> 정확한 통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내 기독교인 비율은 급속한 속도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 4.2. 현재까지의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향후 아시아 선교에서 중국교회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2019년 6월 중국 종교사무국이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종교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그간 2-3년 사이에 폐쇄된 교회가 많고 선교사도 90% 이상 추방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단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중국의 문이 열릴 때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앞에서 줄곧 주장한 대로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서 중국교회가 우리와 손을 잡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려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선교의 양상을 보면, 하층민에게 다가가는 선교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학교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한국 선교사들이 잘 감당했다. 그러나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 그들을 세우기에는 부

33 전철영, "동북아시아의 종교 이해와 선교 현황 및 전략," 150.

족한 점이 많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도 불의 사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교회 내 중산층, 상류층 성도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그들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서 부족한 점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한국 교회에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혜롭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 5.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파트너십 모델로서의 우분트선교회

필자는 한중 파트너십 모델로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사로 함께 했던 우분트선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분트선교회의 모체는 2007년 필리핀의 빈민선교를 위해 설립된 CAMP(Center for Asian Mission for Poor)였으나, 2015년 11월 필리핀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우분트선교회로 개명하여 사역의 변화를 주었다. 우분트(Ubuntu)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 그대로 선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하나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의미가 선교회 이름에 담겨 있다. 우분트선교회에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나는 중국교회를 깨워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1997년부터 우분트 선교회 관계자와 연결되어 꾸준히 양육 받아 온 중국 내 성도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실업인들이다. 재력이나 그 사회에서의 입지가 탄탄한 사람들이다. 또한 꾸준한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 교회를 세웠고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핵심그룹인 중국실업인들은 8가정인데, 세계 선교 현장에 동역자로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몸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분트선교회와 적극적인 파트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지 교회 목회자를 발굴 양육하는 것이다. 현지 선교지 사정상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런 사역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우분트선교회는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 주며,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사역은 현지 장로교단의 요청으로 현지 교단 내 목사 계속 교육과정을 우분트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의 교육을 하고 수료 시 총회장과 우분트선교회 회장 공동명

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사역은 한 선교사나 개 교회의 역량으로나 선교사만의 역량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사역이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이고 목회 경험이 많은 담임목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분트선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해외선교사역은,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이다. 북한은 주로 성경배포 사역과 지하교회 관리를 하고 있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선교지는 한 주간의 집중 교육 방식으로 양육 대상은 현지교회 사역자들이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에는 약 3-5만의 중국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복음 선포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분트선교회는 현재 약 130여 개의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이사 32명과 100여명이 후원 이사가 있다. 운영이사들은 대체로 출석 성도 1,0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담임목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기독교실업인들(CBMC)의 제자양육 사역과 중국의 두 개 지역에서 담임 목회자들의 목회자 양육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중국에서 1,000명의 출석 성도를 둔 교회 담임목사도 있다. 앞으로 중국 내 다른 도시들의 담임 목회자 양육도 확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점차로 선교지 현지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교역자 양육훈련반을 통하여 양육하는 프로그램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까지도 그랬지만 중국에서 행해지는 양육과 모임 전반에 대해 중국 기독교 실업인들이 재정후원을 한다. 강사료와 양육 참석자들의 식비, 체류비, 교통비 일체를 부담한다. 한국교회의 목회 선교적 경험이 많은 강사진들(선교회 운영이사들)과 중국 기독교 실업인의 재정 후원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 여러 나라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길 소망한다. 몇 년 전 MOU를 맺은 미국 덴버신학교와도 구체적인 사역을 협의 중이다. 한중미 연합 선교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세계로 전해 지길 바란다.

## 6. 나가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 선교,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담당할 중국교회를 파트너로 세워야 한다. 이제까지 선교사 한 사람이, 혹은 한 교회가 중국의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했던 사역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음에 열정을 지닌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유대를 확립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정립하고,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축적한 선교와 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국교회가 인적 물적 헌신을 통해 아직 복음화율이 낮은 아시아를 깨워야 한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목회를 잘한 담임목회자들이 팀을 이루어 섬기는 연합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서대문교회 아시아교회 정책 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참고문헌

- 김병태, “한국에서의 아시아기독교사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37 (2014), 9-23.
- 김영호, “선교중국을 위한 중국교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선교와 신학』 37 (2015), 175-204.
- 김홍수 & 안교성 공저, 『잊혀진 우리 이야기, 아시아 기독교 역사』 (논산: 대장간, 2021).
- 변창욱, “아시아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개발과 이양,” 『목회와 신학』 2022년 10월호, 142-146.
- 설충수, “새 시대를 여는 중국기독교의 사명과 방향 모색,” 『한국기독교문화연구』 7 (2015), 137-159.
- 안교성, “아시아 기독교의 역사,” 『목회와 신학』 400 (2022), 128-134.
- 안교성, 『아시아 신학 산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 안승오, “아시아 선교 신학의 현주소와 방향성,” 『목회와 신학』 2022년 10월호, 136-141.
- 안희열, “중국 도시 가정교회의 개척과 전망,” 『복음과 선교』 23 (2013), 123-153.
- 왕원평, “현대 중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사상』 638 (2012), 96-110.
- 장로회신학대학교 제3회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편,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서울: 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전철영, “동북아시아의 종교 이해와 선교 현황 및 전략,” 『목회와 신학』 2022년 10월호, 148-153.
- 전호진, “동남아시아 선교의 과거와 현재,” 『목회와 신학』 2022년 10월호, 154-159.
-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영문, 2016 3쇄).
- 진기영, “인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 선교 전략,” 『목회와 신학』 2022년 10월호, 160-165.
- 홍강, “중국교회의 현주소와 중국선교: 중국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3 (2021), 489-518.



-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A Study in Four Provinces*. London: Robert Scott, 1912.
- Anderson, Rufus. *Foreign Missions: Their Relations and Claims*. 3rd ed. Boston: Congregational Pub. Society, 1874.
- Bays, Daniel H., ed. *Christianity in Chin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Bohr, Paul Richard. *Famine in China and the Missionary: Timothy Richard as Relief Administrator and Advocate of National Reform, 1876-188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Brockey, Liam Matthew. *Journey to the East: The Jesuit Mission to China, 1579-172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Charbonnier, Jean-Pierre. *Christians in China, A.D. 600 to 2000*. San Francisco: Ignatius, 2008.
- Clark, Allen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 Gillman, Ian, and Hans-Joachim Klimkeit. *Christians in Asia Before 1500*.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 Harrison, Brian. *Waiting for China: The Anglo Chinese College at Malacca, 1818-1843, and Early Nineteenth-Century Mission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79.
- Koschorke, Klaus, Frieder Ludwig, and Mariano Delgado, eds.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1450-1990*. Grand Rapids: Eerdmans, 2007.
- Lumsdaine, David H. *Evangelical Christianity and Democracy in Asia*. Oxford: Imsdaine, David H. Evangelical Chri Standaert, Nicholas. *Handbook of Christianity in China*. Vol. 1, 35-1800. Amsterdam: Brill Academic, 2000.
- Sunquist, Scott W., *Explorations in Asian Christianity: History, Theology, and Mission*. Downers Grove: IVP, 2017.



## 목회현장 논평

---

##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에 관한 논평



**정명호 Myung-Ho Chung**

혜성교회 Hyesung church  
preachung@gmail.com

이풍인 박사님의 발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아시아교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지리적으로 이웃에 위치한 아시아교회들과 한국교회가 향후 어떻게 사역적 관계를 맺어 가야 할 것인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 1. 발제자의 견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째, 발제자는 한국교회가 아시아교회들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다양한 교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교회의 선교활동이 아시아 내에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교회

들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이고 목회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발제자는 대륙의 넓이 만큼이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시아교회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향후 선교사역을 원활히 감당하기 위해 지리적 문화적인 ‘아시아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아시아교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는 선교적 연관을 맺고 있는 아시아교회들과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고령화되는 선교 현장의 현실을 시급한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합니다.

셋째, 발제자의 제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목회적으로 축적된 역량과 전문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자원자들과 헌신된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회가 선교적 협력을 통해 두 아시아교회가 아시아교회의 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시도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중국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예와 사역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아시아교회들과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시한 이 부분이 이풍인 박사님의 주제 연구의 큰 유익일 것입니다.

## 2. 이풍인 박사님의 발제가 제시하는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관심이 서구교회 중심적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시아교회들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공명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도전을 제공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교회가 정작 아시아교회들에 대한 연구가 빈약했다는 지적과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라는 큰 틀만 언급할 뿐 “아시아라는 중간적 맥락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라는 본고의 지적은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둘째, 아시아교회들이 당면한 신학적 도전과 교회적 상황이 서로 상이하지만 각 아시아교회들이 ‘세상에 흡수 통합되기보다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일은 세속화의 도전 속에 내일의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주장이며, 아시아교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통분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셋째, 필자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이 중흥을 이루어왔었지만 이제는 선교사역자들의 고향화와 선교사역 쇠퇴의 시기에 접어드는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향후 고민해야 할 주제는 이제 그 선교 사업들을 어떻게 현지 교회와 공유할 것인지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발제자는 모든 현실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시아교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주목하게 합니다. 비록 중국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으로 한국교회와 상이하지만, 각자의 장점을 취합하여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에 중산층이 중심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국 현지 성도들을 한국의 전문화된 신학 인력으로 교육하고 구비시켜 목회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 3. 논평자는 발제자의 논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시아교회를 큰 지역적 틀 안에서 면밀히 다루는 것은 짧은 지면 안에서 불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향후 본 연구가 아시아교회들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소망하면서, 지역 혹은 문화권으로 분류한 아시아교회들의 지도자들과 협업하여 그들의 교회를 그들 스스로 소개하게 하고 한국 연구자들로 하여금 중립적 시각에서 그 논고들에 대한 해설을 담은 협력적인 '아시아교회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포함한 아시아교회는 세계교회의 흐름 안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세계교회의 영향이 아시아교회 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연구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기독교의 흐름을 전 세계적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 필립 젠킨스에 따르면(신의 미래, 2007), 북반구 서구 중심의 기독교 문화는 쇠퇴하는 반면 남반구 비서구 중심의 기독교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인도지역에서 소그룹 가정 교회가 시작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되고 있으며(세상을 뒤흔드는 작은 교회, 2009), 인도네시아 밀립 속에 교회가 형성되고 회심자가 나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sup>1</sup>

1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75>

세계교회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현지의 상황에 공명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교회적 양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교회는 여전히 아시아 각 나라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부여 받고 있으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Christianities in Asia, 2011). 더욱이 이와 같은 변화는 서구권 교회에서 다시금 감지되고 있으므로(선교형 교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의 새로운 표현, 2016) 세계교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아시아교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더욱 풍성한 학술적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끝.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선교신학적 관점

#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



**배춘섭** Choon-Sup Bae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bcs11191@gmail.com

## <초록>

본 논문은 아시아에서 급증하는 이주민을 위한 복음전도를 위해 이주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교회의 총체적 선교사역들을 논의한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권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이주의 이유에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으며, 최근 혁신적 과학 문명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별히 이주민에 관해 연구할 때 구약성경에서의 게르(גֵר)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게르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함께 야웨 신앙을 지닌 자들이다. 신약성경에서 게르는 개종자(προσήλυτος), 이방인(πάροικος), 나그네(γειώρας)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교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첫째,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갖고 오직 복음전도에 힘써야 한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주민을 환대하고 총체적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끝으로, 교회는 이주민과 현지인 간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주민 선교를 통해 이주민을 선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주민의 역-선교(reverse mission)를 통해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야 함을 주장한다.

| 주제어 | 아시아, 선교, 이주, 성경, 복음전도

## I. 서론

성경은 개인과 집단적 이주에 관한 다양한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주는 자의적이든, 반자의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sup>1</sup>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와 사람들의 이주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2010년에 개최한 로잔 3차의 케이프타운 대회 서약문(The Cape Town Commitment)은 현대 이주민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교목적에서 찾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글로벌 현실 중 하나이다. 2억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출신 국가를 벗어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용어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출생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이주하지만, 300만 명의 국제 유학생과 학자들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주한다. 기독교인을 포함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수많은 자들이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에서 난민이 된 자들, 난민 및 망명

1 하나님 구속사와 관련해 이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B.T. Arnold,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Press, 2009), 59; R.E. Averbeck, “A Literary Day, Inter-Textual, and Contextual Reading of Genesis 1-2,” in *Reading Genesis 1-2: An Evangelical Conversation*, ed. J.D. Charles (Peabody: Hendrickson, 1982), 7-34; E. Medeiros, “God scatters to gather through his people: A missional response to migrant churches,” in *Reformed means missional* ed. S.T. Logan (NC, Greensboro: Green Growth Press, 2013), 173-188.

신청자, 인종차별 피해자, 종교적 폭력과 박해를 피해 도망한 자들, 가뭄,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한 기근 환자, 농촌 빈곤 피해자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이주가 수반할 수 있는 악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의 목적**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CTC IIC:5).<sup>2</sup>

이처럼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주는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와 관련된다. 반 타인 뉴엔(van Thanh Ngunyen)은 역사의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자체가 낯선 사람들과 이주자들, 피난민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들에 대해 일련의 내러티브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런 그의 주장은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책임 있는 복음전도 사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을 살핀 후 성경에서 이주민으로 쓰인 용어들의 신학적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sup>4</sup>

2020년 현재 아시아에는 약 46억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그 가운데 국제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 수(약 2억 8천 백만)의 약 40% 이상(약 1억 15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출신이다. 그리고 이민자의 약 절반 이상(6,900만 명)은 “아시아 내의 다른 국가들”에 거주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아시아 대륙에 약 6,10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한 바를 감안(勘案)한다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이주민의 인구이동이 1990년에 3,500만 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아시아 내

2 “2010 The Cape Town Commitment,” <https://lausanne.org/content/ctc/ctcommitment> (2023년 8월 24일 접속); 특별히 2부 “우리가 봉사하는 세상을 위해: 케이프타운 행동 촉구”(For the world we serve: The Cape Town Call to Action)의 C항 “다른 신앙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Living the love of Christ among people of other faiths)에 나타난 5조 “흩어진 민족들에게 다가가는 사랑”(Love reaches out to scattered peoples)을 참조하라.

3 van T. Ngunyen,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9.

4 국제 이민자의 수는 1970년에 약 8,4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무려 2억 8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는 항상 일정치가 않다. 이유는 국제 정세상 세계적 인구이동을 발생시킨 요인들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다. 즉, 전 세계의 이주비용은 변칙적이고 비고정적이었는데, 이주를 일으킨 국제 정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지역적 패턴을 뚜렷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주에 관한 장기간 축적된 자료들을 참조하자면 인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해 이주의 패턴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 이주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열망이 기본적 욕구로서 보편성을 띠기 때문이다; WDR(World Development Report), *Migrants, Refugees, Societ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2023), 49.

에서의 이주민의 이동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방증한다.<sup>5</sup> 실제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내에서는 이주민의 지리적 이동의 증가 수치가 현저히 높았는데, 이런 아시아 이주 정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자연재해나 전쟁이 치러지는 분쟁지역 내에서 박해를 피해 안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사회-정치적 요인이다. 전쟁을 피해 모국을 떠난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난민은 주로 튀르키예(360만 명 이상), 레바논(약 90만 명), 요르단(약 70만 명)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26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은 주로 파키스탄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등에 수용되었다. 또한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과 박해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 인구를 발생시켰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는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을 가속화 했다. 2020년 중국은 무려 500만 건의 재난으로 인해 새로운 이주민을 낳았다. 필리핀에서도 약 400만 건의 재난 사건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방글라데시(400만 명 이상), 인도(약 400만 명), 베트남(약 100만 명)의 등지에서 몬순이나 산사태, 강렬한 사이클론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의 이주민을 양산했다.<sup>6</sup> 최근에는(2023년 2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민 중에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약 800만 명)의 난민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다.<sup>7</sup>

둘째, 긍정적 발전의 기회로서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국제적 이동은 개인 삶의 성취욕구, 가계의 소득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한 이유와 무관할 수 없다.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삶의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마세이(Massey)는 “인간은 대부분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많은 새처럼 철새 같은 존재이다. 실제 이주는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적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인간은 방향하지만 대부분 물질적 개념을 지닌 남녀 사이에서 지리적 이동의 일관적 경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그의 언급대로, 실제 국제 이민은 항상 광범위하게 경제 개념과 얽힌 상태로

5 2020년 현재 아시아에서 북미나 유럽으로의 이주는 약 4,600만 명, 아시아에서 북미로의 이주는 1,750만 명, 그리고 유럽으로의 이주는 2,3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가 6,9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는 아시아가 이주의 시대를 맞았음을 의미한다: WDR, *Migrants, Refugees*, 73-74.

6 McAuliffe, M., & A. Triandafyllidou (eds.), *World Migration Report 2022*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2), 79.

7 WDR, *Migrants, Refugees*, 73-74; 참고로 인간의 과도한 소비활동은 자원 고갈, 생물의 다양성 붕괴, 파잉 생산 등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경제체제를 가져왔다. 또한 과학 문명주의와 인간의 이기적 우월주의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과도히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이상기후와 더불어 수천 종에 달하는 생물의 대량 멸종사태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이상기후는 지구촌에 자연재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전 세계의 생태환경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Message from the Executive Director,” <https://www.unep.org/annualreport/2022/> (2023년 8월 30일 접속).

8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J.E. Taylor,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5), 2.

오랫동안 여러 국가에 의해 자국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정책이 추구하고 수립되었다. 왜냐하면 이 민은 국제 무역, 외교 및 평화의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적 유대를 형성케 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적 요인이다. 오늘날 대부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상당한 노동자의 수요가 요구된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많은 수의 실업자와 고용이 불안한 청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세계의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국가 간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이 잠재적으로 불일치하기에 국가 번영에 있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음을 뜻한다.<sup>9</sup> 물론 고소득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높은 보수, 출생주의 정책, 연금 개혁 등의 방안을 수립하지만,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은 요원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출생주의와 관련해 한국은 부모 세대만큼의 세대를 유지하려면 0.89의 출생률을 4.7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 OECD 국가에서 노인대비 노동자 연령(20-64세) 비율은 2022년 현재 2.9이지만, 2050년에는 1.85로 떨어질 가능성에 놓여있다. 만약 그렇다면, 2050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노동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무려 7년이나 연장해야 한다.<sup>10</sup>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제 이주민을 환영하고 있다.

끝으로, 최근 급격히 인간의 국제 이주를 가속화 하는 요인은 첨단 과학문명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다. 2005년 이후 소위 “4차 산업 혁명”을 초래한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작동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의 증가와 인공지능(AI)의 활용, 첨단 기술의 항공기와 고속철 등의 교통수단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지리적 이동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주자가 학대와 착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함에 따라 불법적인 밀수업자나 인신매매범을 걸러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다.<sup>12</sup> 게다가 이민자들은 인공지능을 기반한 온라인 챗봇을 통해 각국의 복잡한 이주정책과 이민법을 간편히 탐색하여 숙지(熟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은행을

9 1960년 이후 세계의 이주민 인구는 2.7%에서 3.5%로 변동했는데,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았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58%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지만, 중간 소득계층 국가는 평균 17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놀랍게도 저소득 국가에서는 무려 383%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주 변화는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과 이주민 출신 국가의 저소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WDR, *Migrants, Refugees*, 45.

10 WDR, *Migrants, Refugees*, 75.

11 McAuliffe & Triandafyllidou, *World Migration Report 2022*, 5.

12 McAuliffe & Triandafyllidou, *World Migration Report 2022*, 6.

통해 이주민들은 국제 송금과 디지털 계좌를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지리적 이동에 대한 두려움을 부지불식간에 극복하게 되었다.<sup>13</sup>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주민의 이동은 아시아 내에서 증가 수치가 가장 높다. 그리고 향후 아시아에서의 이주민 이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은 저소득 국가의 이주 노동자 수요를 더욱 필요로 하기에, 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은 결과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기에 이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I.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 1. 구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을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는 주로 네 가지이다. 그것은 “게르(*ger*), 자르(*zar*), 노크리(*nokhri*), 토샤브(*toshabh*)” 등이다. 이 중에서 언약과 관련해 선교적 범주에 해당하는 독특한 용어는 게르이다. 이유는 게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야웨 신앙을 지님으로써 언약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통합된 존재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sup>14</sup> 아와브디(*Awabdy*)는 게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는 게르(גר)가 야웨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게르는 야웨와 언약관계로 들어오기 전 아마도 노크리(נוכרי)로 불렸거나, 토샤브(*toshabh*) 혹은 자르(זר)로 불렸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게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의미 있게 통합된 존재인가?… 어떤 이는 게르가 “어떤 선교적 비전을 지녔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게르와 포로, 노예가 이스라엘에 통합되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동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5</sup>

13 “이주민 디지털 격차, 소득·계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9> (2023년 8월 16일 접속).

14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C.J.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501-05.

15 M.A.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II,”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2), 10; 반 호우튼(*van Houten*)은 ‘게르’를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토샤브’는 단기 체류자(*temporary inhabitant*)로 이해한다. 반면 켈러만(*Kellermann*)은 게르가 원주민(*ezrach*)과 외국인(*nokhri*) 사이에 낀 사회적 신분으로서

이런 주장에 따르면, 게르는 단순히 노예, 포로, 외국인, 이방인 등과 같은 부류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율법에 나타난 게르는 언약적 특성으로써 종교적 특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인도주의적 관심과 관련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경택은 그의 논문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에서 노크리와 게르의 차이점을 세 차원에서 기술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도가 없이 단기적으로 거주하지만, 게르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이다. 둘째, 종교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야웨의 종교로 개종을 원치 않지만, 게르는 야웨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이다. 노크리는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게르는 사회적 약자로서 율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신분이다.<sup>16</sup> 또한 패트릭 밀러(Patrick Miller)는 구약성경에서 게르(גר), 자르(גר), 노크리(נוכרי) 등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들의 의미가 “낮선 사람, 외부인 또는 외국인을 언급하는 기본 어휘들”이라고 설명한다.<sup>17</sup>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들 용어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자르’와 ‘노크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르와 노크리는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자들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다분히 적대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그는 말한다.<sup>18</sup> 그렇기 때문에, 밀러는 구약성경의 그 어떤 책에서도 자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수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주민의 현대적 의미는 게르보다는 자르나 노크리에 더 근접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게르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게르’는 구약성경과 율법에서 이주민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sup>20</sup> 이주

현지인의 환대에 의존하는 자들이었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게르는 원주민에 비해 여러 제도적 보호와 우선권이 뒤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게르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야웨 신앙(Yahweh faith)을 준수하는 개종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참조) C.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153-57; D. Kellermann, “מ” *TDOT* II, (1999): 439-49.

16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권 (2010): 67; 더 나아가, 하경택은 노크리의 용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이다(잠 27:2; 전 6:2). 둘째, 어떤 가족이나 씨족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를 지칭할 때이다(창 31:15; 시 69:8). 끝으로, 외국인으로서 먼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를 지칭할 때이다(왕상 8:41; 신 17:15) 참조)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67-69.

17 P.D. Miller (ed.), “Israel as Host to Strangers,”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9.

18 Miller, “Israel as Host to Strangers,” 551.

19 Miller, “Israel as Host to Strangers,” 549-50.

20 참고로 율법에 나타난 ‘게림’(gerim)은 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두루 걸쳐 등장한다. 게림에 대한 율법의 사회학적 특징



민 ‘게르’에 관한 모세율법의 규정은 주로 그들의 신변 보호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게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수용된 자들이기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대하고 배려해야 함을 뜻한다. 무엇보다 율법은 신성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놀랍게도, 이방인에 대한 보호는 모든 고대 법전들 가운데서 모세율법이 유일하다. 반 베이크-보스(van Wijk-Bos)는 ‘낮선 자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토라(Torah)의 핵심적 정신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모세율법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는 없지만 게르에게 유리한 많은 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세율법은 여러 조항에서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게르를 보호한다. 율법은 게르를 학대나 불공정함으로부터 보호하고(출 22:21; 신 24:17), 수확기에 이삭을 줍는 권리를 제공하며(신 24:19-21), 3년마다 거둔 특별한 십일조의 일부를 그들에게 허용한다(신 14:28-29; 26:12-13).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에서 게르가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허락하고(신 1:16-17), 그들이 안식일에 휴식하고(출 20:10; 23:12; 신 5:14), 속죄일(레 16:29-30)과 유월절(출 12:48-49), 칠칠절(신 16:11), 초막절(신 16:14) 등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처럼 모세율법은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주민인 게르를 지원하고 돌볼 것을 요구하는데, 법적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사법적 문제와 안식일에 안식하고 종교적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종교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한다.<sup>22</sup>

하지만 게르(גר, 게르 복수형)은 주최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만 했다. 그들은 정기적인 율법 낭독(신 31:10-13)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은 현지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더욱이 게르들은 성적인 금기를 피해야 했으며(레 18:26),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레 24:22). 또한 그들은 정결법(민 19:10)과 기타 음식의 제한(출 12:19; 레 17:10-15)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금지했다(레 20장; 민 15:30-31). 만약 게르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서 이탈할 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적 정결을 위해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해야만 했다.<sup>23</sup> 또한 게르들은 사회적으로 “거주 외국인, 이방인, 영구 체류자”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구약성경

은 언약적 측면에서 대개 두 가지가 눈에 띄게 주목된다. 하나는 ‘보호받는 이방인 거주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는 종속된 이방인이다. 아마도 게르들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온 자들로서 자기 친척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낮선 땅에 살면서 부족이나 강력한 족장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속되지 않는 타자성’이다. 게르들은 이스라엘과 부분적으로 통합된 거주자였다. 그 결과 그들은 제한적 타자성을 지녔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결혼, 관할권, 예배, 전쟁 참여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6;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73-75.

21 Johanna W.H. van Wijk-Bos, *Making Wise the Simple: The Torah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29-33.

22 M. Daniel Carroll, *Christians at the Border: Immigration the Church, and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2008) 91-112.

23 SVD. van Thanh Nguyen,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24.

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난한 자들(창 12:10; 20:1; 창 47:4; 룻 1:1; 왕상 17:20; 왕하 8:1), 정치적 이유로 피신해 난민과 포로가 된 자들(신 14:29; 16:11; 24:17; 사 16:4; 삼하 4:3; 렘 35:7; 44:14; 스 1:2-4),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도망친 자들(출 2:22; 삼하 13:38; 사 17:7)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게르는 이스라엘 조상에게도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들, 룻과 에서 모두를 게르로 표현했다.<sup>24</sup> 이런 용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게르임을 뜻하며, 곧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이주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함의한다.

## 2. 신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의 게르는 신약성경에 와서 신학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확장된다. 프로셀뤼토스(προσήλυτος)를 제외한 구약성경 안에서 게르(גר)나 게림(גרמ)의 개념에 상응하는 신약성경의 단어는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이다. 이 용어는 “낯선 자, 거주자, 체류나 나그네”로 번역이 가능하다.<sup>25</sup>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παροικος로 묘사한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Caesar Augustus) 황제가 부과한 인구조사에 등록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선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기였다(눅 2:1-7).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이주민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고 그는 보고한다.

특히 마태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극적으로 생생히 전달한다. 마태가 전하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으로서 예수는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외국인 여성을 수반하는 족보에 등장한다. 둘째, 예수의 출생 직후 요셉과 마리아는 전제적 통치자인 헤롯의 위협 앞에서 유아의 대학살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다(마 2:13-23). 반면 무고한

24 이처럼 게림(גרמ)은 온전치 못한 자들로서 자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야곱은 사기꾼이자 책략가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줄기 한 편에 세우셨다. 이것은 게림이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작정에 따라 그들을 택하심으로써 게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림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신성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성경구절에 관한 기록은 다음을 참조하라: Awabdy, “He Loves the Immigrant,” 1-10; 고평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47권 (2018): 112-125.

25 K.L. Schmidt, M.A. Schmidt & R. Meyer, “παροικος,” TDNT, V (1978): 841-53; 참고로 칠십인경(LXX)에서 게르(גר)는 ‘προσήλυτος’(프로셀뤼토스: 개종자)로 63번, ‘παροικος’(파로이코스: 이방인)로 6번, ‘γειώρας’(게이오라스: 나그네)로 한 번 번역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게르가 향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성취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153-57.

아이의 생명을 끝내려 했던 헤롯은 때 이른 죽음을 맞게 된다(마 2:19). 그래서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영토의 후계자인 아켈라오(Archelaus)가 그의 아버지처럼 매우 잔인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마 2:22).<sup>26</sup> 이 때문에 그들은 새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아기 예수와 함께 북쪽의 나사렛(Nazarene)으로 이주한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신학적 의도로 예수님을 난민이자 이민자로 설명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던 역사적 경험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린다(마 2:15).<sup>27</sup> 이렇듯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이주민의 삶을 사셨고, 이후에도 고향에서 지주자로서 실향민으로 사셨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향민으로서 예수님의 삶이 이주 생활의 끝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성인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이방인이자 방랑자, 혹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예수님은 가족과 소유물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막 10:28-31). 심지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주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마 8:20; 눅 9:58). 실제 예수님의 생애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으로 묘사된다(눅 9:51-62).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님이 *πάροικος*(나그네)이셨음을 증거한다.<sup>28</sup>

주변인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오시는 이주민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더욱 발전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으로 제시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를 찾

26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를 통치하는 행정장관(ethnarch)이 되었는데, 그는 잔혹성은 대단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 그가 3,000명을 학살했다는 호소한 바 있다; G.R. Osborne,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Matthew*,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111.

27 마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예수님이 애굽에서 거주하신 사실을 예표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이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대표하고, 그들의 경험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브라운(Brown)은 호세아 구절의 인용을 가리켜, “예수님의 귀환은 애굽에서 나온 사실보다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과 “출애굽의 언급이 마 2:17-18의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R.E.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220;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주 사건이 이스라엘의 이주에 대한 성취를 상기시키며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D.A. Carson,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Grand Rapids: Zandervan, 2010), 91-92;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B. Eerdmans, 2005), 123.

28 E.E. Ellis, *New Century Bible: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4), 152.

아온 로고스(Logos)이신 '신성한 말씀'이다(요 1:14).<sup>29</sup>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1:10-11).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집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셨다(18:36).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16:28).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변인이자 πάροικος로서 삶을 살아가셨다. 주님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자들, 즉 여성,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어울리셨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안식일 규정과 사회 관습마저도 깨뜨리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주민의 삶을 직접 실천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환대가 당연함을 삶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주님의 모범적 삶은 구약성경의 율법이 제시하는 게르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태도와 직결된다.<sup>30</sup>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주민으로 소개한다. 먼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주론적, 사회적 주제를 이주민과 연결해 설명한다. 빌립보서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이방인 이주민'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ἡμῶν γὰρ τὸ πολίτευμα ἐν οὐρανοῖς ὑπάρχει, ἐξ οὗ καὶ σωτῆρα ἀπεκδεχόμεθα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빌 3:20)라고 전한다. 모이세스 실바(Moisés Silva)는 폴리튜마(πολίτευμα)가 "시민권, 거류지, 고국, 국가"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든 상관없이 "하늘나라 시민다운 행동 이념이 바울 사상의 핵심으로 추론되어야 한다"로 주장한다.<sup>31</sup>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민권'(πολίτευμ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시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확신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특권을 소유하며, 모든 권리와 특권을 향유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sup>32</sup> 그렇게 함으로써,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도록 격려한다.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라고 전한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게르이기에 세상의 어

29 AJ.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05-207.

30 특별히 쾨스텐베르거(Köstenberger)는 요한복음 안에서 "새 창조-새 출애굽-성취와 대치-회복"이라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창조-출애굽-유대절기와 제도-바벨론 포로"라는 구속사와 관련해 언약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이주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해한 것이다;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449-450.

31 Moisés Silva, *Philippians*, 최갑중 역, 『BECNT 빌립보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249.

32 M.J. Keown,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ty: Philippians 2:19-4:23* (Bellingham: Lexham Press, 2017), 266.

면 고난 중에서도 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권고한 것이다.

둘째, 히브리서는 거주 외국인(παρεπίδημος)으로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경험한 바를 증거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창세기의 족장들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ξένοι και παρεπίδημοί εἰσιν ἐπὶ τῆς γῆς)로 비유한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한다.<sup>33</sup>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집트, 소돔, 그랄, 블레셋 땅에서만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게르’로 불렸음을 뜻한다(히 11:9).<sup>34</sup> 이스라엘 족장들은 거주지의 원주민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법적인 게르(ἑρ)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고향을 찾는 종말론적이자 우주론적인 게르이기도 했다. 이런 히브리서의 증거는 본향으로 돌아갈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게르로서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며 교회를 격려한다.<sup>35</sup>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같은 게르임을 소개하고,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족장들과 포로기 유배 등의 경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종말론적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독인다.

끝으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παροίκους και παρεπίδημους)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린다(벧전 2:11).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포로인 ‘흩어진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ις διασποράς)에게 보낸 편지이다(벧전 1:1).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sup>36</sup> 드라이든(Dryden)은 나그네를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 이해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풍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sup>37</sup> 또한 램지 마이클스(J.R. Michaels)는 베드로가 παρεπίδημους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기독교인과 유대인과의 유비를 좀 더 천착할 의도였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

33 그룬트만(Grundmann)은 ‘παρεπίδημος’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가 없는 자들로서 단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παρεπίδημος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용어를 종말론적 신앙의 의미를 담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히 11:13): W. Grundmann, “παρεπίδημος,” *TDNT*, II (1964): 64-65.

34 W.L. Lane,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Grand Rapids: Zandervan, 1991), 350.

35 Lane,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350-52.

36 J.H. Elliott,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322.

37 J. de Waal Dryden, *Theology and Ethics in 1 Peter: Paraenetic Strategies for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28.

위를 로마법으로 규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sup>38</sup> 그는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백성”, 즉 기독교인에게 인사말(1:1-2)을 전한 다음 대단락(1:1-12)과 결론 부분(2:1-10)에서 수미상관법(inclusio)이라는 문학형식을 사용했음에 주목한다.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παρεπιδήμιος)임을 베드로가 수사학적으로 논증했다는 것이다.<sup>39</sup> 따라서 이 같은 논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모세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주민을 대하고, 스스로를 ‘게르’(ger)이자 ‘파로이코스’(πάροικος) 혹은 ‘파레피테모스’(παρεπίδημος)와 같은 이주민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 IV. 로잔대회와 교회의 선교사역 적용

##### 1. 로잔대회에서의 이주(migration)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로잔위원회(the Lausanne Committee)는 현재의 세계 복음화 상황, 장애요소 및 새로운 아이디어, 미전도 종족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 등을 탐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회의를 통해 “디아스포라와 유학생: 옆집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Diaspora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New People Next Door)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작성하는 소그룹이 탄생했다. 이 소논문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규모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이 아닌 지역에서 장단기적으로 정착하는 현상을 논의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역사는 이주민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둘째, 성경의 구약과 신약성경은 이주민에 관해 사전과 은유 그리고 내러티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셋째,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에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다.<sup>40</sup> 이런 논의는 오늘날 세계가 “이주의 시대”를 맞이했기에 교회는 이에 따른 선교적 대응, 즉 이주민을 향한 복음전도와 선교사역의 당위성을 뜻한다.

이주민 선교사역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2009년 로잔 회의(Consultations) 이후, 2010년 남아프

38 J.R. Michaels,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WBC 베드로전서』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288.

39 J.R. Michaels,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46.

40 Tom Houston, Robin Thomson, Ram Gidoomal, & Leiton Chinn, “The New People Next Door,” in *Lausanne Occasional Papers(LOP) no. 55: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ed. David Claydo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5), 75-131; 특별히 로잔대회(Lausanne Movement)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준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이은선, “제11차 WCC 총회 주제 분석과 개혁주의 시각에서의 평가,” 『한국개혁신학』 77권 (2023): 98-137; 이은선, “6.25 전쟁과 WCC와 한국교회,” 『한국개혁신학』 58권 (2018): 213-53.

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세계복음화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이주민 선교는 주된 의제였고, 로잔대회의 하위 그룹 중 하나인 이주민 부서를 섬겼던 사디리 티라(Sadiri Tira)는 “흩어져 모이다: 이주민의 세계적 동향을 수용한다”(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라는 소논문을 작성했다. 이 자료는 이주민에 대한 정의와 디아스포라 선교의 유형 그리고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sup>41</sup> 이처럼 로잔대회와 임원 회의에서 제작된 논문들은 이주와 현 인구이동의 성장 추세,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이주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선교 방법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런 논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이주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경신학적 접근은 해석학적 측면에서 역순의 오류를 지닌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은 주석(Exegesis) 후에 해석(Hermeneutics)과 적용(Implication)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문은 주로 이주의 필요성을 우선하여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이주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생성해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역순의 연구방법론, 즉 이주신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적용을 미리 염두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 방법론은 성경 해석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을 얻기 위해 해석학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3차 케이프타운 선교대회 이후 이주민 선교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진보를 나타냈다. 특히 이주민 선교의 적용을 위한 세부 논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그 중 페인(J.D. Payne)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주 패턴과 난민의 영향이 복음전도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히 연구했다. 페인은 자기의 논문, “이웃으로서의 이방인들”(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에서 전 세계의 이주민 패턴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여기서 그는 세계 인구가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빠른 지수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 현상을 성경과 지난 5세기 역사 동안의 이주 패턴을 논의한 이후에 유학생과 난민에 관한 이주를 상세히 다룬다. 그는 오늘날 활발한 인구이동은 세계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기독교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언급한다. 달리 말해, 페인은 미전도 국가의 급격한 인구이동이 어려운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여긴다. 이에 더해, 그는 이주민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슬람의 급격한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유럽에서 성장이 정체된 지역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선교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2</sup> 비슷하게, 크리

41 S. Tira,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Manila: Lifechange Publishing Inc., 2010), 14-39.

42 J.D. Payne, *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 (Downers Grove, IL: IVP, 2012), 155.

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도 구약성경이 난민 상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며, 인류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은 창조적인 하나님 작품의 결과이기에, 교회는 세속 정부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sup>43</sup>

## 2. 교회의 선교적 사역

아시아 내에서 수많은 이주민의 이동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에, 오늘날 교회는 효율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국내의 이주민을 사역을 위한 선교단체와 지역 교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단적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협의회와 기관들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은 1997년 9월 23-26일에 개최한 82회 총회에서 당시 20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복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총회국내외국인선교협의회”<sup>44</sup>를 조직한 바 있다. 이후 총회세계선교회(GMS)는 “국내다민족사역연합체”(KMMC·Korea Multi-ethnic Ministry Community)를 발족하여 국내 이주민 사역자, 다민족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다수의 선교단체와 기관들을 통해 다민족 복음화를 도모했다.<sup>45</sup> 그리고 최근 GMS이주민선교연합회는 2023년 5월 1-3일까지 총회와 총회세계선교회 주최에 힘입어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화 다문화 목회”라는 주제로 선교포럼을 주관하여 개최했다.<sup>46</sup> 이런 총회(합동)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역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간주된다.

### 2.1. 복음전도 사역

구약성경 율법에 나타난 게르와 신약성경의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나 ‘파레피테모스’(παρεπίδημος)의 이해를 통해 교회는 아시아의 이주민 선교를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해야 한다(마 28:19-20; 행 1:8). 성경에서 인류의 이주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해석

43 C.J.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289-323.

44 노충현, 「무관심 속 꾸준한 협력사역... 총회외국인선교협의회 3년」, 기독교신문, 1999. 12. 2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51> (2023년 8월 25일 접속).

45 이지희, 「2030년까지 200개국 2,000명 목회자·자비량 이주민 사역자 파송」, 선교신문, 2020. 2. 5. <https://missionews.co.kr/news/581829#:~:text=GMS> (2023년 8월 25일 접속).

46 노형구, 「GMS 이주민 선교포럼」, 기독교일보, 2023. 4. 27.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48#share> (2023년 8월 25일 접속).



되고 게르와 상응하는 용어들이 야웨 신앙 즉,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된다면 교회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선교적 차원에서, 하도균은 “교회는 다문화 안으로 들어온 모든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sup>47</sup>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복음전도(evangelism) 사역을 강조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교육적, 인도적, 신앙교제, 그리고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교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주도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돌봄과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가 다문화권의 다양한 인종들을 공동체의 동반자로 수용함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동질감을 지닌 연합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sup>48</sup>

특별히 복음전도와 관련해 배춘섭은 그의 논문,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에서 선교의 목적이 복음전도임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우선주의(Prioritism)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대위임령의 전제로서 사회적 관심과 복음전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 간의 신학적 논의를 진중히 논의한다.<sup>49</sup> 그는 교회의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이유로서 “영혼구원을 가장 우선했던 예수님의 사역”(요 6장), “사회정의보다 복음전도에 가장 의미를 주었던 바울의 선교사역”(행 11:26),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의 실천”(행 16:16-18)과 같은 성경의 사례를 예로 든다.<sup>50</sup> 하지만 그는 “우선순위로서 복음전도는 선교의 다른 차원 즉 사회적, 책임이 복음전도를 위한 부차적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우선주의는 총체주의가 사회적 책임을 복음전도와 동등한 권위를 두어 양자의 관계를 불분명케 하고 복음전도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려한다”<sup>51</sup>라고 언급하면서,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이 폄하되거나 인간의 사역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적극 호소한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우선주의가 결코 총체적 선교사역(wholistic missions)을 등한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환언하면,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의되기에 복음전도를 위한 총체적 사역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서로 상충(相沖)되는 바가 아님을 그는 주장한 것이다 (눅 19:10; 요5:30; 고전 9:19-22).

47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권 (2016): 694.

48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693-94.

49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81-90.

50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183; C.R. Little, “What Makes Mission Christian,”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5(2) (2008): 207-17.

51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192.

## 2.2. 환대와 총체적 사역

교회는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살피고 구약시대 게르를 대하듯 복음전도와 함께 총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이주민을 전도대상자로 인식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닌 공동체 일원으로서 수용하기 위해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게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는 공동체의 동반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한다(출 22:20; 23:9; 신 10:19). 게르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받았다(레 19:34; 신 23:8; 26:5; 사52:4; 시 105:23; 대상 16:19). 특히 게르는 고아와 과부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출 22:20; 신 10:18; 14:29; 16:11; 24:17-21; 26:13; 27:19; 렘 7:6; 22:3; 겔 22:7; 말 3:5).<sup>52</sup>

이런 이주민을 향한 인애(仁愛)와 환대는 율법에 나타난 두 가지 동기를 통해 입증된다. 첫째는 게르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환대)를 덧입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게르로서 애굽에서 겪었던 소외와 불의를 잊지 않고, 실제 역사적 기억을 갖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인 억압을 기억하고,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성실하심이 인종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나그네인 게르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다(신 10:12-22).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성실하셔서, 게르에게도 음식과 의복까지 제공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아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주의 자비와 관대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sup>53</sup>

또한 교회는 총체적 사역들을 통해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한다. 사실 이주자들이 타문화권에서 겪는 현실적 고충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석재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에서 국내 이주민이 겪는 고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그것은 ① 경제적 빈곤, ②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 ③ 자기 정체성의 혼란, ④ 현지 한국인들과의 마찰, ⑤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 등이다.<sup>54</sup> 이렇게 국내 이주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교회가 복음전도와 함께 총체적 사역들을 동반해야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교회는 국제 이주자들을 위해 목회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돌봄을 제

52 Kellermann, “גֵּר” TDOT II, 449.

53 M.D. Carroll, “Bibl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and Mission: Contributions from the Old Testament,” *Mission Studies* 30 (2013): 21.

54 전석재,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 『활천』 835권 (2023): 30-31.

공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복음전도를 위해 노동법률 상담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기술 그리고 여타의 도움 등을 사회제도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주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55</sup>

### 2.3.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

교회는 국제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인과 이주민 간에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내외국인들은 소위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나 여러 편파적이고 우월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들과 내국인 사이에서 서로 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sup>56</sup> 이를 통해 교회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민에게도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유지하여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의 이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녀야 한다. 상호존중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은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마음을 열어 복음전도의 기회를 열어주고, 평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의 이해는 아시아인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다. 예컨대, 아시아인의 미덕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를 종교적 미덕으로까지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보시”(Dāna: 관대함/환대)<sup>57</sup>를 중시하여 모든 불교도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덕목으로 가르친다. 심지어 보시가 없이는 누구도 득도(得道)할 수가 없다. 이슬람에서도 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방인

55 비슷하게, 히르슈만(Hirschman)은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사역이 ‘피난처’(Refuge), ‘존경’(Respect) 그리고 ‘자원’(Resource)이라는 복음전도를 위한 총체적 사역으로서 ‘3R’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C. Hirschma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2004): 1228.

56 허준, “다문화사회 이주민에 대한 전도방안 연구,” 『선교신학』 58권 (2020): 395.

57 보시(布施)는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 즉 ‘봉사활동’을 말한다. 《대지도론》 제11권에 따르면, 보시를 행하면 6근(六根)이 청정해지고 유익한 마음[善欲心]이 생겨난다. 그리고 공덕의 과보를 만나게 된다.[31][4] 6근이 청정해지는 것은 12연기에 의하면 비리작용을 제거하는 환멸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익한 마음은 공덕 즉 善業을 쌓는 작용을 하고 쌓인 공덕은 좋은 과보를 만나게 한다. 또한 《대지도론》에 따르면, 보시를 할 때 ‘근접 8정도[相似八正道]와 ‘근접 37도품[相似三十七品]이 마음 속에 생겨난다. 근접 8정도란 《잡아합경》 제28권 제785경 〈광설팔성도경〉등에 의하면 정견 등 8정도는 좋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과 출세간으로 향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의 좋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Dāna,” <https://en.wikipedia.org/wiki/D%4C%81na> (2023년 8월 10일 접속).

에 대한 환대를 매우 진지하게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꾸란 4:36-37). 페르니아(A.M. Pernia)는 아시아인을 위한 세 가지 선교전략으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비수직적 차원의 겸손한 사역. 둘째, 행위보다는 인격적 존중을 통한 존재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사역. 끝으로 개인 소유적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의 나눔을 통한 문화 적응이다.<sup>58</sup> 이처럼 아시아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와 사람들 간의 존중을 전통적으로 고수하여 사회적 통합을 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예우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상호적 이해이다.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문화가 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상호적 인류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얼마든지 이질적 요소의 유입으로 인해 한 문화가 유동적으로 패러다임이 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59</sup> 둘째,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개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지 주류문화에 소수 이주민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sup>60</sup> 이는 자칫 인종차별이나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로까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 내 통합’(unity within diversity)을 추구하는 사회적 통합을 목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고 혼합시키는 멜팅 팻(melting pot)<sup>61</sup>보다는 각 이주민의 독특한 문화를 존중하여 공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sup>62</sup>의 다문화 이론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속문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복음을 통한 문화변혁에 앞장서는 것이다. 샐러드 볼의 다문화 이론 역시도 각 소수 이주민의 숨겨진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그들의 전통 종교의 신앙이 숨겨진 상태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의 가르침 대로 교회는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를 통해 인종적 갈등이나 종교혼합주의 내

58 A.M. Pernia, "Theology whose heart is mission," *Landas* 30(1) (2016): 100-102.

59 특별히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논문을 참고하라. 배춘섭, "문화개념에 관한 신약성경의 어원적 접근," 『성경과 신학』 92 (2020): 25-60.

60 "문화 동화," <https://ko.wikipedia.org/wiki/문화동화> (2023년 8월 26일 접속).

61 "인종의 용광로," <https://ko.wikipedia.org/wiki/인종의용광로> (2023년 8월 26일 접속).

62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은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촉진될 때 모든 다양한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창출하자는 멜팅 팻(melting pot)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여 등장했다. 이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사회적 통합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멜팅 팻과는 달리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즉 각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 예로서, 미국의 뉴욕(New York)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이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이 각자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여 삶을 살아간다. 이후 샐러드 볼의 이론은 캐나다에서 문화 모자이크 이론으로 더욱 세심하게 구체화되었다: B. Kalman, *Canada: The Culture* (New York: Crabtree Publishing, 2010), 4.

지는 세속주의 등의 위협을 숨겨진 문화적 압력을 불식시켜야 한다.<sup>63</sup>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주민을 전도하여 아시아와 세계선교를 위한 역선교(reverse mission)의 주역들로 세워 재파송 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그들이 소외 받는 이주민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전도자로서 선교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을 통한 교회의 이런 역선교는 궁극적으로 선교의 주역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와 구원을 널리 가져다줄 것이다.<sup>64</sup>

##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이주 정세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 이주민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성경적 관점에서 이주에 관해 논의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치는 약 6,900만 명에 달한다. 아시아 내에서의 이주는 비아시아 지역권에서의 이주 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서, 아시아가 이주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급격한 이주에는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인한 피난, 윤택한 삶을 위한 지리적 이동,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 그리고 첨단 과학 문명의 혁신적 기술에 의한 도움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으로 번역 가능한 용어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 선교적 관점에서 게르(גֵר)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게르는 원주민과 이방인 중간 정도에 위치한 신분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서 야훼를 믿는 신앙공동체 안으로 수용된 자들이었다. 이런 게르의 특징은 향후 비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신약성경

63 비슷하게 폴 히버트(P. Hiebert)는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를 주장하여, 복음과 문화 간의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이론도 히버트의 주장처럼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를 통한 성경신학적 이해와 적요이 필요하다. 참조) P.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XIII (1984): 290.

64 역선교는 탈식민지 시대에 서구 세력에 반대한 아프리카 토착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아프리카 오순절교회에서 출발한 선교였다. 특별히 이주민들에 의한 역선교의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J. Hanciles,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325; A.F.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30-32.

은 케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προσήλυτος, πάροικος, γειώρας를 번역해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개종자’, ‘이방인’, ‘나그네’이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가 이주자로서 중 말론적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명시한 것이다(빌 3:20; 히 11:13; 뱀전 1:1; 2:11).

이런 신학적 배경 안에서, 로잔대회는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디아스포라 유학생에 관한 논의를 진중하게 진행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주의 시대였고 성경은 일련의 이주 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며, 20세기 이후 대규모의 이주시대를 맞이했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후 로잔위원회는 2009년 회의를 거쳐 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 세계복음화 로잔대회에서 이주 신학과 선교현장에 관한 더욱 발전된 논의를 거듭했다. 이것은 이주의 의제와 이주민을 향한 복음전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신학적 논의를 기저로, 교회가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주민을 환대하며 복음전도의 결실을 위해 총체적이면서도 실제 필요한 사역들을 동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지니고 복음전도를 통한 문화변혁을 추구하며, 사람들 간의 안정된 통합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목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지하여 이주민 선교를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교의 주체인 복음증거자로서 세움을 받아 역선교를 위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각 민족에게로 재과송 받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광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47권 (2018): 97-135.

노충현. 「무관심 속 꾸준한 협력사역... 총회외국인선교협의회 3년」. 기독교신문. 1999. 12. 2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51> (2023년 8월 25일 접속).

노형구. 「GMS 이주민 선교포럼」. 기독교일보. 2023. 4. 27.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48#share> (2023년 8월 25일 접속).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배춘섭. “로잔운동의 우선주의와 총체주의 간 선교신학적 논의.” 『한국개혁신학』 76권 (2022): 171-205.

배춘섭. “문화개념에 관한 신약성경의 어원적 접근.” 『성경과 신학』 92 (2020): 25-60.

이은선. “6.25 전쟁과 WCC와 한국교회.” 『한국개혁신학』 58권 (2018): 213-53.

이은선. “제11차 WCC 총회 주제 분석과 개혁주의 시각에서의 평가.” 『한국개혁신학』 77권 (2023): 98-137.

이지희. 「2030년까지 200개국 2,000명 목회자·자비량 이주민 사역자 파송」. 선교신문. 2020. 2. 5. <https://missionnews.co.kr/news/581829#:~:text=GMS> (2023년 8월 25일 접속).

전석재. “한국교회 다문화 목회와 이주민 선교.” 『활천』 835권 (2023): 28-33.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권 (2010): 61-88.

하도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권 (2016): 681-710.

허 준. “다문화사회 이주민에 대한 전도방안 연구.” 『선교신학』 58권 (2020): 375-411.

“2010 The Cape Town Commitment,” <https://lausanne.org/content/ctc/ctcommitment> (2023년 8월 24일 접속).

“Dāna,” <https://en.wikipedia.org/wiki/D%C4%81na> (2023년 8월 10일 접속).

“Message from the Executive Director,” <https://www.unep.org/annualreport/2022/> (2023년 8월 30일 접속).

“문화 동화,” <https://ko.wikipedia.org/wiki/문화동화> (2023년 8월 26일 접속).

“이주민 디지털 격차, 소득·계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9> (2023년 8월 16일 접속).

“인종의 용광로,” <https://ko.wikipedia.org/wiki/인종의용광로> (2023년 8월 26일 접속).

Arnold, B.T.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Press, 2009.

Averbeck, R.E. “A Literary Day, Inter-Textual, and Contextual Reading of Genesis 1-2.” In *Reading Genesis 1-2: An Evangelical Conversation*, edited by J.D. Charles (Peabody: Hendrickson, 1982): 7-34.

Awabdy, M.A.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II.”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2.

Brown, R.E.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Carroll, M.D. “Bibl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and Mission: Contributions from the Old Testament.” *Mission Studies* 30 (2013): 9-26.

Carroll, M.D. *Christians at the Border: Immigration the Church, and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2008.

Carson, D.A.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Grand Rapid: Zandervan, 2010.

Dryden, J.D.W. *Theology and Ethics in 1 Peter: Paraenetic Strategies for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6.

Elliott, J.H.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Ellis, E.E. *New Century Bible: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 Eerdmans, 1974.

Grundmann, W. “παρεπίδημος.” *TDNT*, II (1964): 64-65.

Hanciles, J.J.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Hiebert, P.G. “Critical Contextualiz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XIII (1984): 287-96.

Hirschman, C.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2004): 1206-1233.

Houston, Tom, Thomson, R, Gidoomal, R., & Chinn, L. “The New People Next Door.” In *Lausanne Occasional Papers(LOP) no. 55: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edited by D. Claydo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5): 75-131.

Kalman, B. *Canada: The Culture*. New York: Crabtree Publishing, 2010.

Kellermann, D. “רוג”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II*.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439-49.

Keown, M.J.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ty: Philippians 2:19-4:23*. Bellingham: Lexham Press, 2017.

Köstenberger, A.J.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Lane, W.L. *Word Biblical Commentary: Hebrews 9-13*. Grand Rapid: Zandervan, 1991.

Little, C.R. “What Makes Mission Christian.”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5(2) (2008): 207-17.

Massey, D.S.,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 J.E. Taylor,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5.

McAuliffe, M., & A. Triandafyllidou (eds.). *World Migration Report 2022*.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2.

Medeiros, E. "God scatters to gather through his people: A missional response to migrant churches." In *Reformed means missional* edited by S.T. Logan (NC, Greensboro: Green Growth Press, 2013): 173-188.

Michaels, J.R. *Word Biblical Commentary: 1 Peter*. 박문재 역. 『WBC 베드로전서』.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6.

Miller, P.D. "Israel as Host to Strangers."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Edited by P.D. Mill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8-71.

Nguyen, van T.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8-31.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 W.B. Eerdmans, 2005.

Osborne, G.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Matthew*.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마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5.

Payne, J.D. *Strangers Next Door: 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 Downers Grove, IL: IVP, 2012.

Permia, A.M. "Theology whose heart is mission." *Landas* 30(1) (2016): 97-102.

Schmidt, K.L., Schmidt, M.A., & Meyer, R. "πάροικος." *TDNT*, V (1978): 841-53.

Silva, Moisés. *Philippians*. 최갑중 역. 『BECNT 빌립보서』.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Tira, S.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Manila: Lifechange Publishing Inc., 2010.

van Houten, C.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van Thanh Nguyen, SVD. "Asia in Motion: A Biblical Reflection on Migration." *Asian Christian Review* 4(2) (2010): 18-31.

van Wijk-Bos, J.W.H. *Making Wise the Simple: The Torah i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Walls, A.F.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WDR(World Development Report), *Migrants, Refugees, Societ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2023.

Wright, C.J.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Wright, C.J.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6.

## <Abstract>

# A Biblical Examination of Migration for the Asian Mission and It's Application

**Bae, Choon-Sup**

Chong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 in Missiology

This thesis discusses a biblical examination of migration and the church's holistic missionary outreach to evangelize the rapidly growing migrant population in Asia. Today, the number of people migrating from one part of Asia to another is increasing every day. There ar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easons for this rapid migr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by the recent revolutionary scientific civilization. When studying migrants, in particular, the Ger(גר) has a very special meaning in the Old Testament, who is a Gentile but has faith in Yahweh to be accepted into Israel. In the New Testament, Ger is translated as proselytes(προσήλυτος), strangers(πάροικος), and sojourners(γειώρας), which means that they are Christians with eschatological faith who are looked after under God's grace and are hoping for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the church should have the following missionary posture towards migrants from God's redemptive perspective. First, the church should recognize its identity as a migrant temporarily residing on the earth and endeavor to evangelize. Second, the church should welcome migrants with God's love and undertake holistic outreaches. Finally, the church has to practice the ministry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natives. Ultimately, the author proposes to consider the migrants as a subject rather than an object of mission through migrant missions. In doing so, he argues that migrants, as witnesses to the gospel, should be engaged in reverse missions to evangelize the world including the Asia.

| Key words | Asia, Mission, Migration, Bible, Evangelism.





## 선교신학 논평

---

## “아시아 선교를 위한 이주의 성경적 고찰과 적용”에 관한 논평



**박진호** Jin-Ho Park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lovenamibia@gmail.com

### <요약>

이주의 문제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본다.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이주민은 아담과 하와였다고 생각한다. 차치하고 배춘섭은 이 논문을 통해 아시아권 중심의 이주에 관련된 선교의 성경적 고찰과 교회의 총체적 선교사역, 그리고 이주민이 선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1. 서론

저자는 2010년 로잔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서약문(CTC II:5)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생지로 부터 이주한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주자들을 위한 선교적 목적을 위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선교적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2. 개요: 아시아의 이주 정세와 요인: 정치 경제 지리적 영향

- 2020년 아시아 현재 약 46억의 인구가 살고 있음.
- 국제 이민자는 2억 8천 백만(약 1억 1,500만)으로, 이민자의 40% 아시아, 절반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살고 있음.
-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피해국가들은 주로 터키(튀르키예), 요르단,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그 외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2023년 9월 1일 현재 민간인 사상자 약 9,177명의 사상자, 러시아는 약 25천명)

※ 지난 30년 동안의 아시아 내 지리적 인구이동 증가 수치 상승 요인들

- 1) 자연재해와 전쟁, 분쟁지역 내 박해 등 사회 정치적 요인
- 2) 긍정적 발전기회로써 윤택한 삶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 3) 글로벌 경쟁력 위해 이주노동자 수용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요인  
(고령화사회의 결과적 영향)
- 4) 노동력 비율 유지를 위해 국내 노동자 연령 7년 연장해야 노동력 비율 유지

※ 4차 산업혁명의 결과

-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 과학문명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 발전: 시스템 변화 가져옴.
- 2) AI, 교통수단의 발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밀수 인신매매 등 정보 확보 원활
- 3) 온라인 챗봇 통해 이주민 정책 및 이민법 간편 탐색 및 숙지 가능
- 4) 블록체인, 디지털은행 통한 국제송금 등 지리적 이동에 대한 어려움 극복 원활



※ 이주민 증가

- 1) 전 세계 이주민 증가 수치 아시아 내에서 가장 높음.
- 2) 이주민 이동 더욱 활성화 기대 - 고소득 국가의 노동력 부족은 저소득 국가의 이주 노동자 수요 필요
- 3) 고령화로 인한 국제간 이주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 전망
- 4) 데니스 김(Denis Kim): 2018년 한국 0.98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수 십년 후 노동력 부족 사태 경험 가능
- 5) 한국 고소득 경제 유지 위해 저소득 국가의 이주노동자 수요 필요 적극 수용하게 됨.
- 6) 이런 상황은 가난과 연결된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나 빈곤 국가로부터 이주노동자 적극 수용 인정해야 함.

결론적으로 이주민 선교와 관련 난민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 1) 구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 4가지: 게르, 자르, 노크리, 토샤브  
이 중 게르는 야훼와의 언약과 관련된 선교적 사회적 범주에 해당

하경택의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 세 가지

①제도적 차원 - 노크리: 이스라엘에 정착 의도 없음. 단기적 거주

게르: 영구적 이스라엘에 정착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인

②종교적 차원 - 노크리: 야훼종교로 개종 원치 않음.

게르: 야훼신앙으로 개종/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원함.

③사회적 차원 - 노크리: 법적 사회적 보호대상 아님.

게르: 사회적 약자로서 율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음.

패트릭 밀러 Patrick Miller

- 구약성경에서 게르, 자르, 노크리의 의미는 “낮선사람, 외부인 또는 외국인을 언급하는 기본 어휘”
  - 하지만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대상, ‘자르’와 ‘노크리’ 는 보호 못 받는 이방인.
  - 자르와 노크리 = 상업활동이 가능한 자들(적대감 받음). 그래서 자르 = 이스라엘 공동체 수용된 사례 없음.
  - 그런 면에서 “이주민”의 현대적 의미는 노크리에 더 근접하다고 이해된다.
  - 선교적 측면에서는 “게르” 이해가 중요: 거주자, 체류자, 나그네로 번역 가능
  - 모세율법은 게르의 신변보호와 언약백성의 의미 지님. 하나님의 언약관계로 차별 없이 수용됨.
  - 게림에게는 유리한 많은 법전들이 있다.
- ① 단순히 노예, 포로, 이방인 등과 같은 부류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 ② 율법이 말하는 게르는 언약적 특성으로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 ③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인도주의적 관심과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 ④ 아웨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 ⑤ 게림(게르복수형)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 정기적 히브리어 율법낭독, 성적 금기 피함(레18:26), 정결법(민19:10), 음식제한(출12:19; 레17:10-15), 가장 중요한 법은 레20장, 민15:30-31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모독 금지(레20장; 민15:30-31)
    - 게림이 언약백성 정체성 이탈 시 이스라엘 공동체 교류 단절
  - ⑥ 게림에게 주는 특혜
    - 수확기에 이삭줍기(신24:19), 3년마다 십일조 일부를 허용(신14:28-29; 26:12-13), 안식일 휴식, 속죄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절기 참여 허락
    - 모세율법은 이주민인 게림을 지원하고 돌봄, 사회 종교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 사법적 문제와 인식일에 안식, 종교적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종교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
  - ⑦ 게르: 이스라엘 조상에게 개념적용, 창세기 아브라함 야곱 열두 아들들, 롯과 모두 게르로 표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게르임을 뜻하며 곧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이주민의 삶을 살  
아야 하는 것 함의를 담고 있다.

## 2) 신약성경에서의 이주민

구약의 게르의 신약적 관점의 신학적 의미

신약의 “프로셀리토스”를 제외한 구약의 ‘게르’나 ‘게림’의 개념의 단어는 낯선자, 거주자, 체류자나 “나그네”로 번역이 되는 “파로이코스”이다. 누가와 마태는 “이주민 예수”를 전했다.

마태가 말하는 이주민 예수님의 정체성

- 첫째, 예수는 다말, 라합, 롯과 같은 이주민으로서 외국인 여성을 수반하는 족보에 등장
- 둘째, 북쪽 나사렛으로 이주한 예수를 마태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애굽에서 이주민의 삶을 사셨고 실향민으로서 난민이자 이방인이며 방랑자나 떠돌이 이주민으로 묘사함(호세 아11:1)
- 주님은 파로이코스(나그네)이셨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마태는 결국 예수님은 방랑자, 이방인, 혹은 방랑자로 여겼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끊임없는 이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로서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무덤에 묻히신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 주변인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오시는 이주민 예수
-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방인이자 방랑자 이주민, 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로고스이며, 신성한 말씀이고, 요1:14 에서 보듯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땅에 찾아오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무시고 오셨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를 의미하는 “폴리튜마”를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정체성 인식시키려 함.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 인식하고 영생의 특권과 종말론적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빌립보서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론적 사회적 주제를 이주민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방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주민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거주 외국인 ‘파레피테모스’로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경험한 바를 증거한다. 히 11장 16

절에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법적 게르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이방인 같은 게르임을 소개하고, 또한 구약시대 포로기의 유배 등의 경험을 통해 종말론적이며 우주론적 삶과 신앙을 형성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다독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춘섭은 베드로전서 2:11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의 “파로이코우스카이 파레피테모스”, 즉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리고 있으며,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포로가 되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램지 마이클스는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 (Inclusio, 또는 Ring composition) 수미쌍관법의 문학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택한백성”인 교회가 바로 나그네임을 베드로가 수사학적으로 논증했다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춘섭은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주민을 모세율법 정신에 따라 대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야웨와의 언약과 관련하여 신학적 선교적 범주에 해당하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함께 야웨신앙을 지닌 ‘게르’Ger, ‘파로이 코스’, ‘파레피테모스’(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주민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이끈다고 이해하였다.

#### 4. 로잔대회와 교회의 선교사역 적용

##### 1) 로잔대회에서의 이주(Migration)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는 세계 복음화 상황과 장애요소,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전도종족 접근 위한 선교 전략 탐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디아스포라 유학생: 옆집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Diasporas and International Student: The New People Next Door”라는 아티클이 소그룹을 통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타국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착현상을 논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인류역사 이주민으로 가득찬 시대

②신구약성경의 이주민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

③20세기부터 현재까지 전례없는 대규모 이주 발생 등 이었다.

2009년 이주민선교사역 정의 도출시도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 개최

주된 의제: “이주민선교” 이었다. 이주민 부서 사디리 티라(Sadiri Tira)는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s of Diaspora” 라는 소논문 작성.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정의, 디아스포라 선교유형 및 세부사항 구체화 등 이었으며, 거기서 이주민 선교방법론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주민 선교에 관한 세부 논의는 진보를 보였다. 특히 페인의 “이웃으로서의 이방인들”은 세계의 이주민 패턴을 통해 세계인구지수가 이주로 인해 빠른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세기 동안 유학생과 난민에 관한 이주패턴을 조사하였으며, 인구이동과 복음전파로 인한 세계 및 기독교의 변화와 유럽의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을 언급하였다.

## 2)교회의 선교적 사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1997년 9월 23-26일 제82회 총회에서 “총회국내 외국인 선교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 다민족사역연합체 KMMC KOREA: multi-ethnic Ministry Community를 구성하였다.

### 2.1. 복음전도사역

발제자는 구약의 게르와 신약의 파로이코스과 파레피데모스가 거류민과 나그네를 이해하고 이주민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도균은 교회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동질감과 신앙,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거기에는 교육적 인도적 신앙교제와 선교적 차원 복음전도, 교회의 역할, 돌봄과 환대 등의 실천이 따라야 함을 언급했다.

### 2.2 환대와 총체적 사역

발제자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신앙의 동반자로서, 복음전도와 함께 환대해야 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 게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환대와 접근 그리고 관대함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주민들이 겪는 고충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석재는 다섯 가지 이주민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경제적 빈곤 2)다문화 가정의 문제 3)자기 정체성의 혼란 4) 현지 한국인들과 마찰 5)불법체류

경계해야 할 것: 필자는 복음전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을 도와주며 헌신적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는 어쩌면 오히려 의존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후에는 오히려 저들이 먼저 요구를 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요구”의 시작으로부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 2.3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역

통합을 위해 교회는 이주민과 상호 간의 문화 이해와 소통 및 존중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문화 중심 우월주의 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들이 자국 내에서 가졌던 저들의 종교들이다. 종교가 언급되면 사회적 통합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종교적 측면에서의 갈등은 신앙의 내면에서 상호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기대하는 사회적 통합은 종교로 인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인격적 존중과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의 선교적 접근을 요구한다. 1)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2)사회적 통합 위한 다양한 문화의 개성과 독특성 인정, 3)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속문화의 위협을 경계하고 복음 통한 문화변혁에 앞장선다. 또한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요구되며 숨겨진 문화적 압력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회는 저들을 전도하기 원하지만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저들의 치열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저들의 싸움에 관한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국의 삶 속에서 웃고 있지만 허한 마음을 가진 이주민들을 전도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역선교의 주역들로 재파송해야 하는 거룩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것은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이다.

## 논평

인구절벽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의 수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의 불어나는 이주민들의 역할은 한국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제자는 초록에서 밝히듯 아시아에 급증하는 이주민과 이주민 복음전도에 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성경적 고찰을 통해 읽는이로 하여금 이주민 선교에 관한 다양한 많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발제자가 정한 주제어는 아시아, 선교, 이주, 성경, 복음전도 이다. 발제자는 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에 언급된 “게르”, 자르, 노크리, 토샤브 등의 성경에 입각한 단어연구를 통해 이주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연관된 주제들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과 사역들을 심도 있게 논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주민들에 관한 삶의 정황과 이주민들을 향한 교회적 측면, 그리고 크리스천의 이주민들을 향한 복음전도적 측면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읽는 이들은 이주자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저들을 향한 크리스천들의 사명과 교회의 글로컬 선교의 역할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심사숙고와 더불어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를 위한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리라 확신한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실천신학적 관점

#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

Communality and Relationality:  
Reformed Foundations and Directions of the Pastoral Ministry for the Asian Churches



주종훈 Jonghun Joo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jhjoo@chongshin.ac.kr

## <초록>

목회 사역은 복음의 본질과 상황적 수용이라는 신학과 문화의 복잡한 과제를 직면하게 한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선교의 과정에서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과 서구문화의 형태를 힘입은 사역을 구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오랫동안 신학과 문화의 통합 원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원리로 받아들여 왔다. 이 글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의 상황화 과정이 목회 사역에 미친 영향을 비평적으로 해석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문화의 상황적 수용을 위한 사역의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더불어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인정하지만,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는 토대와 방향을 제시한다. 개혁주의 목회는 성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을 공동

체를 통해 구축하는 것에 집중한다. 언약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회심을 통한 새로운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성 구축에 집중하고,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실제로 나타나는데 주력하고, 교회 사역의 선교적 지향점을 명확히 반영하며,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 공동체의 다문화적 상황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에 주력한다.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아시아 교회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토대와 방향이 되며, 이에 기반을 둔 세분화된 사역의 실천 지침 개발을 요구한다.

### 1. 들어가는 말: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

기독교 목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sup>1</sup>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고 동시에 교회의 지도력을 통한 사역이다.<sup>2</sup>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단지 그룹의 매니저나 운동 경기의 코치와는 달리 성경에 기초하고, 신학에 토대를 두며, 문화적으로 적실성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회 사역에 대한 해석과 이해, 신학의 전통과 강조점, 그리고 문화적 상황과 회중들의 특징은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유형을 결정한다. 곧, 목회 사역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신학적 정체성을 제시하며 문화적 적실성을 지혜롭게 반영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한 지역과 문화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의 유형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변화 없이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성경과 신학의 강조점은 지속할 수 있지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접근은 어렵다. 이와 반대로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반영하는 목회 사역은 성경과 신학의 안내에 따른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형성보다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방식의 기울어진 사역이 될 수 있다.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이라는 목회 사역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구기독교는 문화화된 기독교를 비서구기독교에 주입하거나 답습하도록 주도해 왔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 또는 문화화(inculturation)는 오랫동안 선교 영역에서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유형과 방식에도 주도적인 원리로

1 Christopher Beeley, *Leading God's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2012)

2 William Willimon,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14-18.

수용해 왔다.<sup>3</sup> 상황화 또는 문화화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 교회 사역을 문화에 부합하게 제시하는 것은 신학과 문화의 통합 원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원리로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상황화'는 단지 복음의 본질을 상황적으로 수용하거나 하나의 이상화된 형태를 문화적 특수성에 부합하게 제시하는 것이기 보다는 이미 문화의 형태로 주어진 내용과 방식을 또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유기적 전환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곧, 이미 문화화된 내용과 방식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서구기독교의 문화화된 형태를 모두가 따라야 할 전형 또는 규범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또 다른 문화적 상황에 답습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사역 곧 목회를 위한 신학과 문화의 접근을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히 아시아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서구기독교의 선교 대상으로 간주되어왔고, 그로 인해서 문화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아시아 교회들의 건강하고 성숙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목회 사역에서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 이해와 수용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목회 사역은 단지 교리를 체계화된 공식이나 원리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와 종교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신학적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나 문화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글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문화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서구기독교의 상황화에 영향을 받아 온 아시아교회들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째로, 아시아교회들이 그동안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복음주의적 서구기독교의 사역 방식과 유형을 답습해 온 현실과 특징을 비평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제시하고, 동시에 개혁주의 문화에 근거한 사역의 원리를 구축한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접근이 회심과 전도를 넘어서서 삶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신학과 문화의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문화에 토대를 둔 공동체성 강화와 관계성 구축을 위한 목회 사역의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3        복음주의 선교의 상황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해서는 A. Scott Moreau, *Contextualization in World Missions: Mapping and Assessing Evangelical Model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2) 참고하고, 사역 가운데 예배의 상황화에 대해서는 Anscar Chupungco,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s, Religiosity and Catechesi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5)를 참고.

## 2.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특징과 과제

오늘날 아시아지역<sup>4</sup>의 기독교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목회 사역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 현상과 선교에 나타난 다양한 방향성은 더 이상 어느 한 지역과 하나의 기독교 신앙 형태가 모든 지역의 기독교 신앙과 목회를 위한 고정된 모델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비평적으로 받아들인다.<sup>5</sup> 하지만, 외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목회 방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현상 그리고 특징은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비롯된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신학 전통 또는 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수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은 ‘복음주의’가 지닌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 확증,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확증,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에의 참여, 넷째는 전도와 선교의 강조, 다섯째는 변화된 영적 삶의 강조다.<sup>6</sup> 이러한 복음주의의 개념은 목회 사역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변화된 삶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도록 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로,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회심 경험의 강조에 있다. 복음주의 개념이 제시하는 성경, 그리스도 중심성,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변화된 삶은 실제 목회 사역에서는 (1)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2)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3)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에 참여하며, (4) 변화된 삶을 위한 회심과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게 한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원리는 교단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통일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과제로 수용해 왔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적 원리를 기반으로 둔 목회 사역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를 먼저 수용한 서구기독교가 비서구기독교에 복음을 전하면서 발전시킨 사역은 우선 ‘회심’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마크 놀(Mark Noll)은 자신의 책,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현상』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sup>7</sup>에서 서구 복음주의 기독교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비서구기독교

4 이 글에서 언급하는 ‘아시아지역’은 방대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 가운데 특정한 한 지역보다는 대륙으로 구분된 비서구지역의 비서구권 사역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5 Michael Goheen,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Scripture, History and Issues* (Downers Grove: IVP, 2014), 25-6. ‘세계 기독교’ 현상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선교의 다양한 방향성은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인 방향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6 George Marsden, “The Evangelical Denomination,” *Evangelicals: Who They Have Been, Are Now, and Could Be*, ed., Mark Noll, David Bebbington, and George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2019), 22-3.

7 Mark Noll,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VP, 2013).

에 영향을 미친 영향은 '회심'에 집중하는 기독교 사역이라고 비평적으로 제시한다. 곧 미국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목회 사역의 방향과 과제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한다. 중생은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 부분적인 경험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형성을 위해서 목회 사역 가운데 회심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사역은 중생 경험에 대한 고백과 간증(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강화하지만, 전인적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목회 사역의 과제를 축소시킨다.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에 충실한 목회 사역은 회심과 중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과 삶의 전인격적 형성"<sup>8</sup>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따른 목회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복음과 문화의 연결과 통합에 나타난 상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복음의 본질을 다양한 지역과 대상에 적용하는 원리와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상황화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질을 반영하는 대상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황화는 문화화(inculturation; acculturation) 또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불가피하게 강조한다. 기독교 복음의 선교적 목회적 적용 과정에서 발전시킨 구체적인 문화화의 방식은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창의적 동화(creative assimilation), 그리고 유기적 진전(organic progress)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문화적 상황에 적실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sup>9</sup> 이 방식은 복음의 본질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지만,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culture)를 넘어서서 복음의 문화화(inculturation of the gospel)를 강조하는 원리로 나타난다. 하지만, 목회 사역에서 복음의 문화화는 이상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변하는 복음과 다양한 문화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도전이 주어진다.<sup>10</sup>

이러한 목회 사역의 어려운 도전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는 특정한 문화의 '우월주의'와

8 James Wilhoit, *Spiritual Formation As If The Church Mattered: Growing in Christ Through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2022), 10-24.

9 Anscar Chupungco, *Cultural Adaptation of the Liturgy* (New York: Paulist Press, 1982); *Liturgies of the Future: The Process and Methods of Inculturation* (Mahwah, NJ: Paulist Press, 1989);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als, Religiosity, and Catechesis* 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독교와 문화의 선교적, 목회적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추봉코가 발전시킨 원리는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Maryknoll: Orbis Books, 2005)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화화의 방식에 대한 예배와 목회적 수용이다.

10 Janel Curry, "Cross-Boundary Faith: The Universal and the Contextual,"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47.

복잡한 문화 사이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미 다른 문화의 상황에서 발전한 형태를 우월적으로 수용하거나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채, 혼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각각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마크 프란시스(Mark Francis)는 문화의 우월성과 중심성을 특징한 지역에서 주어진 기독교 신앙 방식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경계한다.<sup>11</sup> 마이클 혼(Michael Hawn)은 미국의 문화 방식에서 주어진 기독교 사역의 형태는 우월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p>12</sup> 토드 빌링스(Todd Billings)는 성육신적 접근과 상황화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이상적 연결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정 문화의 옷을 입은 기독교 사역이 다른 지역에 상황화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문화 우월주의를 반영한다고 비평적으로 제시한다.<sup>13</sup> 이와 더불어, 자넬 커리(Janel Curry)는 상황화가 목회 사역의 현실에서 성경과 문화적 표현 사이의 혼합주의적 형태를 제시하고, 결국 특정 문화의 기독교 사역이 다른 문화의 기독교 사역에 대해서 비평적 태도와 판단에 사로잡힐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sup>14</sup> 이처럼 복음주의 기독교는 전도와 선교의 강조를 통해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지역과 상황에서 문화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다. 하지만 상황화 또는 문화화의 이상적 또는 방법론적 적용과 연결에 나타난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복잡한 과제와 신학적 경계를 직면하게 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우월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수용은 경계한다.

셋째로, 복음주의 목회 사역에 나타난 특징은 회심 경험의 강조와 복음의 문화적 표현 곧 상황화를 이끌면서 사역의 과정과 내용에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 사역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문화의 표현 방식 과정에서 가치를 내포한다. 곧, 북미 기독교의 신앙과 사역은 ‘북미’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반영한다. ‘아시아’ 기독교의 신앙과 사역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반영한다. 여기서, ‘북미’ 또는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의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에 담긴 가치를 분별해야 하는 과제를 요구받는다. 북미 기독교의 문화적 특징은 복음전도 과정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배한다. 북미 기독교에 스며있는 문화의 가치는 그 자체로 성경적 기독교의 문화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 신학자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친 후, 북미로 돌아가서 『미국은 복음을 어떻게

11 Mark Francis, *Shape a Circle Ever Wider: Liturgical Incultu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Liturgical Illustration Press, 2000).

12 Michael Hawn, *Gather Into One: Praying and Singing Globall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3 Todd Billings,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 Chapter 5.

14 Curry, "Cross-Boundary Faith," 48.

게 듣고 있는가?』(*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sup>15</sup>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문화적 수용 방식에 담긴 개인주의, 실용주의, 낙관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국 기독교는 개인의 회심 경험, 교회 사역의 외적 성장에 집중하는 실용주의, 그리고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확신하는 낙관주의에 깊이 몰들어 있고, 그것을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에 반영한다는 것을 풀어낸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드러난 문화적 가치 곧 개인의 신앙 경험 강조, 교회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낙관주의적 기대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임스 스미스(James K.A. Smith)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에 나타난 지성주의적 접근과 소비주의 가치가 목회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풀어낸다. 스미스(Smith)는 자신의 책, *Desiring the Kingdom*에서 기독교 사역에서 단지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 강조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sup>16</sup> 복음주의 기독교는 교회 사역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의 형성을 위해 교리의 가르침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스미스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 복음을 지적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기독교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고, 또 둘 사이가 자연적이고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sup>17</sup>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역은 대부분 성경 공부와 교리의 가르침이 곧 사역의 전부 또는 실천의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그 자체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원리는 비평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다. 목회 사역의 현실에서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핵심 신앙 교리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성령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지혜로운 참여와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 수용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의 원리와 방식은 성경과 삶의 형성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이고 효력을 제시하는 과제를 요구받는다.

15 William Dyrness, *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16 James K.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09).

17 Smith, *Desiring the Kingdom*, 31-2.



### 3.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신학적 문화적 원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목회 사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회심을 강조하고, 복음의 문화화 또는 상황적 수용을 강화하며, 복음의 문화적 표현에 내포되는 가치에 주목하고 복미 중심의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주지주의를 반영한 사역의 특징을 고찰하게 한 것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여가 된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 권위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고, 복음과 문화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수용하며 목회 사역에 반영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와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목회 사역에서 모두 성경과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은 문화의 상황화가 지닌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아울러, 목회 사역의 고정된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도 경계한다. 목회 사역과 관련한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의 원리는 성경에 따른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언약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을 향한 섬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언약에 기반을 둔다. 언약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발전시킨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으로서 언약<sup>18</sup>은 약속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언약은 인격적 관계 구축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이며, 개인의 성취를 위한 보장이 아니라 교차문화적(cross-cultural)이고 다세대를 연결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며, 스스로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외심적(exocentric) 특징을 지닌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이처럼 인격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특징을 지닌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sup>19</sup>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계성의 특징과 강조는 언약이 단지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간섭과 역사임을 강조한다.

언약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목회

18 창 9:8-11(노아), 창 12:1-2(아브라함), 사 11:6-9; 렘 31:27-33; 32:40, 겔 34(다윗), 마 26:28(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고후 3:6, 롬 9:4(바울) 등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제시하는 성경의 표현들이다.

19 Michael Horton, *Covenant and Eschatology: The Divine Dram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3.

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수단 제공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sup>20</sup>을 넘어서서 약속에 기반을 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을 위한 섬김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세상에서 단절된 관계에 속한 이들을 향한 외심적 노력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더불어 강조한다. 곧 소외, 단절,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그룹과 문화, 인종차별, 적대, 불의 등으로 인해 단절된 대상을 향해 다가가고 다시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곧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 방식을 이웃과의 관계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약에 기반을 목회 사역은 존 윌트빌릿(John Witvliet)이 비평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언약 자체의 개념보다 언약의 왜곡(distortion of covenant) 또는 잘못된 관계 방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sup>21</sup> 개혁주의는 세상과의 관계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 회복의 목회적 노력은 언약이 단지 신학의 추상적 개념이나 이미지를 넘어서서 신앙과 삶을 구축하는 실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초청과 더불어 참여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삼위일체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구축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존재(Being-in-relation)하시는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은 상호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거하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방식으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은 단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개념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필립 부틴(Philip Butin)은 자신의 책,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에서 칼빈의 성경적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이고, 인간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논증한다.<sup>23</sup> 인간은 근대 이후 개인의 관점에서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주의에 근거한 근대 기독교 신앙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개념으로 제한시키

20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 기독교 사역은 믿음을 개인 성취와 민족의 수단으로 축소하거나 전환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집중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Christian Scharen, *Faith As A Way of Life: A Vision for Pastoral Leade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8)에서 명료하게 제시한다.

21 John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78.

22 James K. A. Smith,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17), 1-18.

23 Philip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참고.

고, 한 분 하나님과 삼위 사이의 논리적 논증에 집중했다. 콜린 군튼(Colin Gunton)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하나님 이해와 수용이 근대 사회에 미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자신의 강연에서 신랄하게 비평했다.<sup>24</sup>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하나님 이해를 경계한다. 우리가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삶의 방식도 성경에 따른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강조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개혁주의적 강조는 목회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 수용될 수 있다. 목회는 삼위 하나님에 따른 인간의 형상을 이 땅에서 구축하도록 돕는 노력과 실천을 지향한다. 기독교인은 한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을 구현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과 존중을 공동체에서 직접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다. 목회는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체로부터 출발하는 한 지체 곧 몸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직접 강화하는 사역이다. 여기서 목회는 성도 각자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반응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인간의 온전한 풍요와 실현은 완전한 자율적 존재로 스스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성취를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 방식으로 거할 때 주어진다.<sup>25</sup> 물론,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인정한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죄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목회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과 거리를 갖고 있으며, 기계적인 모방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땅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신학적 이상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간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공동체에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향한 책임을 지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티븐 시맨즈(Stephen Seamands)는 기독교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목회적 실천 방식의 일곱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시맨즈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을 목회 사역에 반영하는 과제는 ‘관계적 인격성’(relational personhood)의 구축, ‘친밀함’(joyful intimacy) 강화, ‘기쁨으로 자신을 낮춤’(glad surrender), ‘복잡하며 단순한 삶의 역설’(complex simplicity) 인정, ‘자기 받아들임’(gracious self-acceptance), ‘상호 의존의 존재 방

24 Colin Gunton, *The One, The Three,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5 Ruth DeBorst, "Men and Women: Made by and for Community,"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86.

식'(mutual indwelling), 그리고 '열정적인 섬김'(passionate mission)이다.<sup>26</sup> 이 일곱 가지 원리 또는 사역의 방식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성도들의 삶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로 수용할 수 있다.

셋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세상 문화 수용과 변혁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웃과 세상에 반영한다.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교회의 보편성과 더불어 지역성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의 위치와 책임을 강조한다. 칼빈은 중세의 신학뿐 아니라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개혁을 강화했다.<sup>27</sup> 칼빈 이후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를 단지 이상적인 보편 교회로만 이해하거나 축소된 의미의 제도적 교회로 제한하지 않는다. 곧,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를 이상적 개념으로 추상화하거나 좁은 의미의 제도로 제한시키면서, 개인적인 소명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개입과 변혁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역(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개혁주의 전통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한시키거나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한다.<sup>28</sup> 개혁주의 전통은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상호 연결하고, 양육하는 실천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그 관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가 이 땅에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으로 구현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과정과 방식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물론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과 기준이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한 실천과 참여 방식이다. 곧, 빛트빌릿이 정리한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 성례의 집행, 전도와 목회적 돌봄 등과 같은 교회의 다양한 실천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들로 수용"<sup>29</sup>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목회

26 Stephen Seamands, *Ministry In The Image of God: The Trinitarian Shape of Christian Service* (Downer Grove: IVP, 2005).

27 칼빈의 개혁 사상과 실천의 가장 중요한 대상과 영역이 바로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것(The Necessity of Reforming Church)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8 Richard Mouw, "Elected For A Global Mission,"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24.

29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81.

사역은 전통적으로 수용해 온 은혜의 방편들(말씀, 성례, 기도)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 제시를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지 않지만, 은혜의 방편을 통한 신앙 형성과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구원 사역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에 참여한다.

넷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문화 이해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을 교회론에 반영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문화에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독려한다. 프레드 그레함(Fred Graham)은 칼빈의 신학은 성경과 세상(the Word and world)의 진지한 고찰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sup>30</sup> 아브라함 카이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sup>31</sup>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교회 사역이 지향하는 문화의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다. 더니스에 따르면,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인간의 참여로써, 삼위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 방식을 구축하고(establishing patterned relationship between the Trinitarian God and God's world and people),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구현하고 감당하는 실재(agency and embodiment of the Trinitarian God's ministry)이다.<sup>32</sup>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따른 질서를 반영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교회의 소명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세상과 문화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 방식을 구축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목회 사역은 제도적 교회의 실천이 유기적 교회(성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문화 이해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복음의 상황화에 따른 접근과 구분된다. 복음의 보편적 본질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구현하는 것은 '상황화'의 일반적인 입장과 같지만, 개혁주의 전통은 상황화에서 초래되는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한다. 상황화를 위한 신학적 토대는 선교학에서 주어진 성육신 원리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의 문화에 실제로 다가와 구원 사역을 하신 것에 따라, 특정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 복

30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8).

31 Abraham Kuyper, "Calvinism and Politics," in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4), 79-80.

32 William Dyrness, *The Earth Is God's* (Maryknoll: Orbis Books, 1997), 18-24.

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 다가가는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토드 빌링스(Todd Billings)가 비평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성육신적 사역(incarnate ministry)의 접근과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한다.<sup>33</sup>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에 성육신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천의 실재에서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연합하고 각각의 독특성을 지니며 또 다른 문화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교회사역은 문화의 다름과 지체의 다름(difference)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sup>34</sup>

#### 4. 공동체성과 관계성 구축을 위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방향과 실천 과제:

##### 아시아교회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에 따른 목회 사역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더불어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강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와 달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사역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개인적 접근보다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균형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복음과 문화의 연결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기존의 상황화에서 주어진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문화에 담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과 이를 위한 교회 사역의 역할과 성육신적 접근을 넘어선 다양성에서 주어지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어진 신학과 문화의 토대에 따라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실천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언약을 목회 사역의 직접적인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언약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목회 사역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약이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33 Billings, *Union With Christ*, 86-88.

34 Billings, *Union With Christ*, 109-110.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언약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신앙의 수단화를 경계한다. 삶의 풍요로움이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확신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자신의 필요에 따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고정할 때 언약에 기반을 둔 신앙이 형성된다(눅 10:25-27).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삶의 방식에 따라 관계성의 단절과 배제 그리고 소외와 외면 등에 직면하고 있다.<sup>35</sup> 특히,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면서 서구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도 고립, 단절, 개인주의, 혐오, 배제, 차별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진다.<sup>36</sup>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직접 형성하는 목회적 실천 과제는 중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약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안에서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교회의 기본 실천에 집중하는 것이다. 설교, 성례, 가르침, 전도, 목회적 돌봄의 다양한 목회적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성 요소들이다. 역사적 기독교와 개혁주의 전통에서 강화한 목회 사역의 기본 요소들(말씀, 기도, 성례)을 간과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목회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sup>37</sup>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축을 강화하지 않은채, 사회적 현실의 과제들을 직접 참여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행동주의(activism)를 이끌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를 어렵게 한다.<sup>38</sup>

둘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공동체의 실천 곧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비전을 목회 사역의 중요한 실천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언약의 공동체적 경험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에서 더욱 선명하게 요구된다. 개혁주의는 개인 경건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삶으로 확대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등을 관계성 구축과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의 핵심 과제로 수용한다.<sup>39</sup>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데만 집중하는 실천을 경계한다. 오히려

35 Andy Crouch, *The Life We Are Looking For: Reclaiming Relationship In A Technological World* (New York: Convergent, 2022), 121-130.

36 Willie,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79.

37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81.

38 Emmanuel Katongole and Chris Rice, *Reconciling All Things: A Christian Vision for Justice, Peace and Healing* (Downers Grove: IVP, 2008).

39 Susan Fel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120.

개인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로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러한 정체성 규정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할 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성을 건 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시아교회들은 서구 사회와 달리 개인주의에 근거한 신앙 과 삶의 형성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화된 서구기독교 신앙의 형태 는 비서구 사회에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에 대해 비교적 강조하지 못했다. 이러한 목회 사역에서의 공동체성 강조는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 동체 전체의 회복이라는 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그룹이나 개인의 비전 성취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이나 신분 등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 의 언어를 공유하며, 환대와 인정의 성례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셋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성(faith formation)에 주력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통한 사역에서 복음을 강화하는 것은 회심에 집중 하는 것과 더불어 신앙과 삶의 형성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 서구 복음주의 기독교에 영향을 받아 교회 사역과 공동체의 모임에서 주로 강조해 온 실천은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반응이다. 곧 복음 주의 기독교 사역은 회심자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해 왔다.<sup>40</sup> 회심자를 이끌어내는 사역의 방식은 근대 기독교 역사의 공동체 모임에서 드러난 집회 형태의 목회 사역을 강화한다. 모임에서 참여자들 의 (1) 마음을 준비하고, (2)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제시하고, (3)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결단에 집 중한다.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에서 회개와 결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역은 신앙 이후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신앙의 가치를 삶에서 제시하는 측면을 강조하지 못한다. 서구기독교 선 교의 대상으로 간주 된 아시아교회들은 오랫동안 회심자 양성 또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의 경험을 강화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 신앙과 삶의 체계와 관계 방식을 강조하는 개혁 주의 신앙을 따라서 회개 이후의 삶의 형성을 위한 신앙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서 우선 실천에 주력할 것은 삶의 주기(life-cycle)를 목회에 반영하는 것이다.<sup>41</sup> 단지 새로운 생명뿐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전환 과정 곧 출생, 결혼, 죽음 등에 적절한 의례를 제시함으로써 목회

40 Melanie Ross, *Evangelical Vs Liturgical? Defying A Dichotomy* (Grand Rapids: Eerdmans, 2014), 15.

41 Jackson Carroll,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196.



적 접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sup>42</sup> 이와 더불어, 은혜 경험의 방편들(말씀, 성례, 기도)을 강화하고, 교회 실천의 핵심 구성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은혜 방편들의 목회적 실천 강화는 메시지 선포와 회심자 확대라는 교회 사역의 축소주의적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게 경험하게 하는 핵심 실천 과제이다.

셋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지향점을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근대 정신에 기반을 둔 사역은 개인의 회심과 이성적 깨달음에 따른 말씀 수용을 강화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근대 정신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과 세상에 향한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회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사역은 주변 사회가 교회의 이웃이라는 점과 더불어 교회가 주변 사회와 공동체에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신학적 확신을 갖는 것보다 교회가 세상에 개입(civic or public engagement)한다는 것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선교 지향적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있는 이웃 가운데 억압받는 자, 소외와 단절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도움을 요구한다.<sup>44</sup> 이러한 사역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한 매력을 제시하는 것보다 주변 이웃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헌신과 희생의 섬김을 통해 개혁주의적 비전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참여와 헌신은 교회의 관계성이 단지 성도들을 향한 연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환대(hospitality)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단일문화 또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공동성을 의도적으로 지향하며, 함께 연결된 관계성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과제를 요청받는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사역에 구축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회심 경험에 집중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을 넘어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목회 사역은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과 사람 그리고 건물과 같은 외적 자원을 통한 나눔과 더불어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에 접촉하며, 필요한 회복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42 Herbert Anderson and Edward Foley, *Mighty Stories and Dangerous Rituals: Weaving Together the Human and the Divin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참고.

43 Mark Mulder,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8), 25.

44 Mulder,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29-30.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을 형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다문화적 상황을 종말론적 비전으로 접근하고 적극 수용한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다른 인종, 계층, 세대의 수용과 통합을 위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교회 밖의 문화에 대한 견해와 태도 곧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에 따른 긴장과 대립을 주목하고 다룰 것을 요구한다.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이 한 공동체에 모이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일 문화 공동체로 있으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회 성장의 원리는 단일문화(homogenous culture)로 구성될 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sup>45</sup>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미 다문화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목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정된 접근으로 사용한 기독교(교회)와 문화의 관계 구축보다는 '나이로비 선언문'<sup>46</sup>에서 제시한 기독교 사역의 초문화적 요소, 상황적 요소, 반문화적 요소, 교차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선언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역의 요소들이 복음의 초월성과 문화의 상황성 가운데서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지닌 자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사역을 수행한 목회의 중요한 원리는 상호 배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환대와 존중 그리고 수용이다.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의 연합과 융합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비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참여하며, 세상을 향해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무조건적 수용과 환대가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 복음에 반하는 가치를 담아낸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는 반문화적 대응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적 상황의 수용은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이나 독자적

45 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질 때, 복음이 전달 및 수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라 성장의 주된 원리와 방식으로 수용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외적 성장을 이끈 동종 그룹 또는 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다문화적 상황의 수용과 목회적 연결에 다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동종(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그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중한다. 동종 그룹(단일문화)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을 참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단일) 그룹과 문화에 의한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한 강조가 다문화적 상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6 예배와 문화에 대한 선언으로써, "예배와 문화에 관한 나이로비 선언문: 현대에 주어진 도전과 기회들"로 알려져 있다. 이 선언은 예배의 초문화적 요소들, 상황적 요소들, 교차문화적 요소들, 그리고 반문화적 요소들을 지혜롭게 구분해서 목회(특히 예배)에 적용해야 하는 사역의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인 구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문화를 경계한다.<sup>47</sup> 이를 위해서, 목회 사역에서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유하는 복음의 초문화적 요소를 확신하고, 다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교차문화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 5. 나가는 말

이 글은 지금까지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토대 구축과 실천 방향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초문화적(transcultural) 측면을 지니지만, 동시에 지역, 문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주어진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서구기독교의 선교와 문화화된 사역 방식에 영향을 받아왔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다.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회심 경험을 강화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은 목회 사역에서 서구기독교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학적 토대에 따라 문화에 부합한 건강한 사역을 구축해야 하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기여를 했다. 하지만, 개인의 회심 경험과 고백 그리고 간증을 강화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를 통해서 구축하는 과제를 비교적 강조하지 못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자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문화적 상황에 부합하게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을 둔 관계성과 삼위 하나님의 형성을 구현하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중심된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며, 회심 이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통한 변혁적 비전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단지 성육신적 접근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곧, 교회 내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초문화적, 반문화적, 교차문화적, 반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단지 특정 문화의 형태를 입은 실천의 상황화를 비평적으로 경계하고, 성경과 복음에 따른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지체 상호간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

47 Fel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21.

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아시아교회들을 향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포괄적 제안은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책임과 과제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계속되는 목회적 과제들은 교회의 직제 구성, 설교를 포함한 예배 구성과 실천, 목회적 돌봄의 방식으로 다양한 예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축시키는 교육,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문화의 가치 분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실천적 제안을 담아내는 것이다.

## 참고 문헌

Anderson, Herbert and Foley, Edward, *Mighty Stories and Dangerous Rituals: Weaving Together the Human and the Divin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Beeley, Christopher. *Leading God's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2012.

Billings, Todd.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

Butin, Philip.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arroll, Jackson.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Chupungco, Anscar. *Cultural Adaptation of the Liturgy*. New York: Paulist Press, 1982.

\_\_\_\_\_.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s, Religiosity and Catechesi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5.

\_\_\_\_\_. *Liturgies of the Future: The Process and Methods of Inculturation*. Mahwah, PA: Paulist Press, 1989.

Crouch, Andy. *The Life We Are Looking For: Reclaiming Relationship In A Technological World*. New York: Convergent, 2022.

Curry, Janel. "Cross-Boundary Faith: The Universal and the Contextual."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47-56.

DeBorst, Ruth. "Men and Women: Made by and for Community."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85-92.

Dyrness, William. *The Earth Is God's*. Maryknoll: Orbis Books, 1997.

\_\_\_\_\_. *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Felch, Sus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119-131.

Francis, Mark. *Shape a Circle Ever Wider: Liturgical Incultu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Liturgical Illustration Press, 2000.

Goheen, Michael.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Scripture, History and Issues*. Downers Grove: IVP, 2014.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8.

Gunton, Colin. *The One, The Three,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awn, Michael. *Gather Into One: Praying and Singing Globally*. Grand Rapids: Eerdmans, 2003.

Horton, Michael. *Covenant and Eschatology: The Divine Dram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Katongole, Emmanuel and Rice, Chris. *Reconciling All Things: A Christian Vision for Justice, Peace and Healing*. Downers Grove: IVP, 2008.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Maryknoll: Orbis Books, 2005.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4.

Marsden, George. "The Evangelical Denomination," *Evangelicals: Who They Have Been, Are Now, and Could Be*. Edited by Mark Noll, David Bebbington, and George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2019.

McGavran, Donal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

Moreau, A. Scott. *Contextualization in World Missions: Mapping and Assessing Evangelical Model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2.

Mouw, Richard, "Elected For A Global Mission."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15-28.

Mulder, Mark.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8.

Noll, Mark.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VP, 2013.

Ross, Melanie. *Evangelical Vs Liturgical? Defying A Dichotomy*. Grand Rapids: Eerdmans, 2014.

Scharen, Christian. *Faith As A Way of Life: A Vision for Pastoral Leade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8.

Seamands, Stephen. *Ministry In The Image of God: The Trinitarian Shape of Christian Service*. Downer Grove: IVP, 2005.

Smith, James K.A.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09.

\_\_\_\_\_.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17.

Wilhoit, James. *Spiritual Formation As If The Church Mattered: Growing in Christ Through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2022.

Willimon, William.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Witvliet, John.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75-84.



## 실천신학 논평



---

##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에 관한 논평



**김대혁** Dae-Hyeok Kim

충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dhkim@csu.ac.kr

### 들어가며

16세기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아시아 지역 기독교 인구가 점차 성장하다가, 20세기 대규모의 부흥 운동(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최근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지역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종교 분포를 조사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PRC(Pew Research Center)의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에 개신교 인구는 4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컴퓨터선교회(KCM)가 2023년에 제공한 세계선교지도에 의하면, 4억 3천만 명으로 보고된다. 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8.2%를 차지하는 기독교는 현재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초기 한국의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독교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교육, 의료, 구제 등 다양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려는 학문적인 시도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상호 섬김의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다.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시아교회의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면서도, 목회 사역의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자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한 실천신학적 사고 양상과 사역 방향의 틀과 열개를 제공하는 매우 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논문의 핵심 요약과 공헌

연구자의 논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회 사역의 핵심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성경에 기반한 신학적 정체성과 지역과 문화적 적실성이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기초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기존 서구화된 기독교의 문화화나 상황화를 조심하고, 단순한 원리와 내용의 주입식 접근이 아니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세 가지 주제적 흐름을 따라서, 1) 기존의 복음주의적 서구기독교의 사역 방식과 현실에 대한 비평적 평가, 2)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와 문화관에 입각한 목회 사역의 원리 확인, 3) 개혁주의 신학과 문화 토대를 둔 공동체성 강화와 관계성 구축을 위한 목회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연구자는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원리와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성경의 중요성, 그리스도 중심성, 전도와 선교, 변화된 삶을 위한 회심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회심 경험을 강조하는 사역이었다. 둘째, 복음과 문화의 연결과 통합을 모색하는 상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월주의’나 ‘혼합주의’적인 상황화를 경계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실제 복음의 문화화를 이해하며 실천하는데 도식적인 관계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관계를 분별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앞선 두 가지의 특징과 더불어 기존의 상황화의 방법이 기독교적 교리나 가르침을 실천에 연결하는 지식과 원리 위주의 명제적인 접근방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교리와 지식도 전달도 중요하지만, 삶의 형성의 총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특징에 대한 비평과 함께, 연구자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신학적 문화적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 중심성, 복음과 문화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복음주의 목회 사역과 공유점이 있지만,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전통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 섬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원리로 첫째,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성을 기초로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인정하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강조한다. 둘째, 삼위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구축하는 원리를 수행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의 방식을 따라서 성도 각자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반응을 고취하도록 한다. 셋째, 세상 문화 수용과 변혁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되, 교회를 이상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현과 동시에 교회를 통한 세상을 향한 관계를 구축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넷째, 이는 교회의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독려한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세상 문화에 반영되도록 하는 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준다. 이 가운데 교회의 대사회적 사역은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연구자는 앞선 개혁주의 사역 원리를 따라서 아시아교회들을 향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목회 사역의 방향과 실천 과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분명한 직접적인 사역 과제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개인주의적 삶에서 나오는 폐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기본 실천이 사회적 적실성보다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비전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구현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 고백과 경건 실천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공동체적 회복과 연대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성, 성화론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심 이후에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신앙 실천과 형성을 추구해야 한

다. 넷째,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지향점을 확립하고,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이 실천적으로 제시되는 사역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참여와 헌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종말론적 비전 아래에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명한 복음의 초월성과 다양하게 구현되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가장 큰 공헌은 기존의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현상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정리와 비평, 개혁주의 입장에서 목회 사역이 지향해야 할 원리와 실천 과제들을 매우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복음의 상황화라는 당위성 속에서 자칫 복음과 문화의 관계 규정이나 기존의 단일화된 모델로 함몰되어 획일화 혹은 과편화된 복음의 문화 접근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논문이다.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난 목회 현상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선명한 분석은 오늘날 아시아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교회에서 교리와 가르침의 현실 적용의 실천 신학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앙이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능숙하지 못한 한국교회들에 대한 비평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특히 이 논문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에 기초한 언약 신학적 강조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비평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선명한 신학적 모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주의적인 서구기독교의 약점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들의 실천 양상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는 실천 신학적 렌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교회를 포함한 아시아교회들이 목회 사역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서구기독교의 맹목적인 답습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 위에서 건실한 목회 사역과 실천에 훌륭한 사과의 틀거리를 제공함이 틀림없다.

## 질의들

연구자의 논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선명한 실천 신학적 방향성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논평자는 논문 자체의 평가보다는 이 논문을 토대로 아시아교회들에 대한 목회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더불어 이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기에, 상황화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상 분석과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시한 사역 방향과 과제 역시도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현장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자명한데, 이때 신학자와 현장 사역자가 취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나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연구자의 고견이 궁금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은 문화적으로 다채로울 뿐 아니라, 사실 정치적, 사회적 도전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실천 신학적 변치 않는 상수와 더불어 정치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수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점이 아시아지역교회를 향한 목회 사역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궁금하다.

## 닫는 글

아시아 지역 교회의 일어섬과 나아감은 세계 기독교의 미래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이론 신학자들의 연구와 제안,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과 적용을 통한 대안의 성찰적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목회 사역의 패러다임에 대한 현상 분석과 개혁주의 역사에서 검증된 원리를 제공하여 선명한 목회 사역의 방향과 과제들 제시해 주신 연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



## 공적 영역의 관점

#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Public Sphere in Asia



**김민석** Min-seok Kim

한국공공신학연구소 The Centre for Public Theology Korea  
minseuk79@gmail.com

## <초록>

한국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이후 매우 짧은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내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외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시기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의 기독교의 거룩과 부흥을 위해 헌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격변 속에 있는 아시아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혁과 전통 속에서 기독교와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아우구스티누스 - 루터 - 칼뱅으로 이어지는 그 변천 과정을 통해 알아본다. 이어서 리처드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다섯 가지 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며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할 방법론으로써 공공신학적 태도를 제안한다.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정립한 후에는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여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기독교가 어떤 주제로 공공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곳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데, ‘평화’,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가 예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 기독교의 거룩과 부흥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1. 들어가는 글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는 아시아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도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거룩과 부흥이 오직 예배와 기도와 헌금 생활과 같은 예전적 행위에만 달려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과 부흥은 성도 개인의 예배 생활과 교회 밖 세상에서의 신앙적 삶, 이 두 영역의 균형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시대에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예배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교회 밖 세상을 공공 영역이라고 간단히 규정할 때, 결국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는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에 관한 고찰이 선행될 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두 정부의 ‘이중 국적 시민’이다. 하나는 ‘영적 정부’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 정부’이다. 그러나 이 두 정부의 법과 윤리, 통치 방식이 서로 다르며, 결국 이 불일치로부터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Heinrich Bedford-Strohm)<sup>1</sup>은 신권 국가(theocratic state)와 무신론 국가(atheist state) 모두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한다.<sup>2</sup> 즉, 신권 국가에서는 정부가

1 세계 공공신학계를 리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개신교 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의 회장을 역임했다.

2 Heinrich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a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24.

특정 종교의 권위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와 중세 카톨릭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무신론 국가에서는 정부가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무신론 국가에서 종교는 국가에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정부와 종교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견해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두 정부론이 그동안 어떻게 논의 되어왔는지 역사적, 문헌적 연구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델의 특징과 각 모델이 가진 단점을 분석하며 개혁과 전통은 그 중 어떤 모델을 선호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 모델들이 보여주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공공신학적 태도를 소개한다.

특히 문화 변혁 모델로 접근하기 어려운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선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인해 자연스럽게 갈등의 환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평화'라는 주제는 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평화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적극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익숙한 주제이다. '기후 위기'라는 주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고민이기에 기독교가 이 주제로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 자리 잡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토대로 각 국가별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후속 연구자의 몫으로 남긴다.

## 2. 교회와 공공 영역의 관계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정부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두 정부 이론의 시작과 발전 과정 속에 나타

난 다양한 신학적 차이에 대해 서술한다.

## 2.1. 두 정부 이론의 변천

데이비드 밴드루넨(David VanDrunen)에 따르면, 개혁과 전통이 두 정부 이론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활동을 다스리시되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영적 나라)를 다스리시고, 창조주와 보존자로서 국가와 다른 모든 사회 제도(시민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런 이유로 두 정부의 "목표와 기능과 작용 방식"은 크게 다르다.<sup>3</sup>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의 '두 도성 교리'는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알맞다. 그는 "두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구별했다." 전자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로 구성된 하늘의 예루살렘"인 "종말론적 도성"이다. 이와 달리, 후자는 "참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즉 모든 악인들로 이루어진다." 각 개인은 이 둘 중 하나의 도성에만 속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도성에, 비기독교인은 인간의 도성에 거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과, 시민 정부를 지상에 현시된 인간의 도성과 느슨하게 동일시한다."<sup>4</sup>

그러나 현재에서는 이 두 도성이 서로 얽혀 있어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참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독교인이 국가와 더 넓은 사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도성의 일원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평화를 활용하며, 비기독교인과 함께 직업을 향유할 수 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 간의 확실한 대립을 기초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두 왕국 교리의 확립은 당시 그가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 개혁자로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세속 정부를 지배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며, 그의 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Frederick)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인해 세속 정부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도 프리드리히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루터는 그의 소논문 "세속적 권위"(Temporal Authority)에서 두 왕국 교리를 자

3 데이비드 밴드루넨,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4.

4 Ibid., 45.

세히 설명하고 있다. 루터는 창세기 4장 14-15절과 9장 6절을 인용하며 세속적 권위가 처음부터 주어졌고, 모세의 율법과 세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주장한다.<sup>5</sup>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위해 두 개의 통치를 세웠다. 영적 통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참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속적 통치는 악인과 비기독교인을 법과 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sup>6</sup>

그러나 루터 역시 두 왕국 간의 대립과 공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이 비록 구별된 왕국의 백성으로 살지만 세속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시민 권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돕지 않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sup>7</sup> 이로써 루터도 역시 기독교인이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드루넨에 따르면, 루터의 두 왕국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교리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어느 한 정부에만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진실로 두 교향과는 다른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연속성도 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진정한 지상 영역의 시민으로 여기면서 기독교적 사랑의 분명한 표현으로서 시민 영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기꺼이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sup>8</sup>

장 칼뱅(Jean Calvin)의 이중 정부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확실히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또는 인간의 나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두 정부는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서로 다른 통치 방식이 적용될 뿐이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두 나라 모두의 회원이다."<sup>9</sup>

칼뱅의 이러한 주장은 먼저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며, 나아가 당시 시민 정부의 전복을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재세례파와 대립된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 정부에 속하여 영적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곧 시민 정부의 통치에 불복종하라는 것을 의미

5 Martin Luther,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Luther's Works*, Vol. 45, ed. Walther I. Brandt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85-88.

6 Ibid., 91-92.

7 Ibid., 94.

8 반드루넨, 『자연법과 두 나라』, 104.

9 Ibid., 119.

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정부와 시민 정부는 확연하게 분리될 수 없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도성의 대립 구조를 매우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공통성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 이어 루터와 칼뱅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두 정부의 공통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며, 심지어 칼뱅은 두 정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결국 세상과 격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2. 문화 변혁적 세계관

교회와 정부의 관계, 즉 이 두 정부가 완전히 대립하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립하나 그 안에 통일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회가 정부 또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결정된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 기독교인은 주로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참고한다. 그는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sup>10</sup> 첫 번째 분류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모델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터툴리안(Tertullian)과 톨스토이(Tolstoi)가 있다. 이 모델은 문화 자체를 죄의 결과로 여긴다. 특히 터툴리안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대립관계를 강조했다. 이 모델은 기독교의 사회 문화적 책임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계시'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려는 이원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두 번째 모델은 '문화 속의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이다. 문화 속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와 19

10 리처드 니버, 홍병용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이 분류가 기독교와 문화의 역동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도식화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제는 현대에 맞는 더 발전된 분류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세기 문화-프로테스탄티즘이 이런 자세를 취했다. 니버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신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우 왜곡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는 단지 어떤 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격하된다. 계시 역시 지능이 낮은 일반인을 위한 '우화'로 폄하한다. 문화의 격상은 반대로 '원죄'를 제거한다.

세 번째 모델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이다. 이 모델은 문화와 그리스도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긍정하는 '종합유형'이다. 이 유형이 첫 번째 모델과 다른 점은 문화에 대하여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모델과 다른 점은 반대로 그리스도와 문화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교회는 신법의 관리자이며 세상의 질서를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위계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네 번째 모델은 '문화와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이다. 이 모델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문화에 속해 있으며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고 간주한다. 결국 이 부패한 문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계시와 이성 등 대립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 이것은 '중간 지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적 경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반 율법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회에 대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회의주의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 이들은 종교적 제도나 종교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만 관심 갖고 사회적 문제들에는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ing Culture)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모델과 유사하지만, 문화를 변혁할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변혁을 시도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두 극단적 모델의 중간 단계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에서 문화 활동도 함께 할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파 교회들은 대부분 이 셋 중의 하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개혁파 교회들은 특히 '문화 변혁 주의'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3. 공공신학적 태도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먼저 '영적 정부'와 '시민 정부'의 대립 관계를 인정하되, 기독교인을 두 정부 모두와 관련된 '이중 국적자' 또는 '순례자'로 여기며 피할 수

없는 공통적 관계가 있음을 인지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과 단절되어 어떤 고립된 공동체로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세상 속에 거주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개혁파 기독교인은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모델 중 양 극단을 제외한 중간적 모델을 선호하며, 특히 기독교인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변혁시켜야 한다고 보는 문화 변혁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실천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즉, '역설 모델'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회의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을 취하는 기독교인은 비록 이 모델이 문화를 대립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교회 내에서 사적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불러온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대부분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진보적' 또는 '좌파적' 교회로 인식한다.

한편 문화 변혁 모델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종종 폭력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이들에게 세상의 문화는 궁극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자리 잡아 이들을 계도 내지 교정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대하여 마치 '도덕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본래 니버가 의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가 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태도는 기독교인 인구가 많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양 극단적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 세상과 문화에 대한 '공공신학적 태도'는 매우 유용하다. 특히 개혁파 공공신학<sup>11)</sup>은 기독교와 세상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대화의 파트너로 간주한다. 이들은 도덕 선생으로서 세상 위에 자리하려는 것을 지양한다. 세상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 변혁 모델이 창조-타락-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속에서 죄악 된 세상을 구속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공공신학은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만드

11 공공신학계에서 개혁파 공공신학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넓은 스펙트럼의 공공신학들 중에서 특히 개혁주의 사상을 그 신학적 기초로 하여 공공신학을 개진하는 것을 개혁파 공공신학으로 간주한다.

루넨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적 나라를 구속주로 통치하시고, 시민적 나라를 구속주가 아니라 창조주와 보존자로 다스리신다.”<sup>12</sup> 이렇게 세상을 여전히 창조주께서 다스리신다는 인식 아래 세상을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 세상이 기독교인을 폭력적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준다. 게다가 이런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변혁 모델이 추구하는 변혁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공공신학적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sup>13</sup>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 능력’은 공공신학을 다른 신학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 교회 밖 공공 영역에서 비기독교인들과 대화 할 때, 기독교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기독교인만 설득될 수 있는 논리로 대화하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론장에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종교적 언어를 날 것 그대로 사용할 경우 ‘대화 종결자’<sup>14</sup>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이유로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곤 한다.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 크리스텐덤에서 기독교는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었다. 교회의 법이 세상에도 영향을 주었고,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리스텐덤의 시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 크리스텐덤의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가 고도로 성장하던 때에, 기독교는 서서히 권력의 자리로 이동했다. 기독교 역시 세속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부흥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기에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고 내심 교회에 출석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개인의 영달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편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다소 무례하게 굴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더 이상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기독교의 인구가 아직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과연 모두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다. 최근 미디어에 노출된 기독교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며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전과 같이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

12 반드루넨, 『자연법과 두 나라』, 124.

13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여섯 가지 특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민석,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37-75.

14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17.



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무례한 기독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세상이 설득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 겸손하게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불교가 국교인 국가에서 기독교가 세상 위에 위치하려 하거나, 다소 공격적인 태도로 세상을 변혁하려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들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고 공격적 물량공세로 선교하려는 태도가 여전한 것은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처사다. 아시아 기독교가 거룩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을 공공신학적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 3. 아시아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지 않고, 비기독교인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회 문제는 곧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버리고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베드포드-슈트롬은 교회는 항상 공적 교회였으며 교회의 공적 발언이야말로 교회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sup>15</sup>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고유의 신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확고한 기독교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은 “한편으로, 대중과의 만남, 공통 언어의 축진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독특성과 공헌을 잃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의 가치와 이해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 속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적 플랫폼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sup>16</sup>고 지적한다.

결국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공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의 방법론도 중요

15 Heinrich Bedford-Strohm, “Klar Und Verständlich,”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47.

16 Sebastian C. H.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2011), 19.

하지만, 어떤 주제로 공론장에 참여하여 기독교 신념으로부터 나온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어떤 주제로 다가갈지의 문제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신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나, 아시아의 상황에 맞는 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천될 수 있다.

### 3.1. 평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종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대에 '평화'는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이자, 기독교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그의 책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에서 교회가 "평화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그 신실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의 이해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sup>17</sup>

물론,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종종 보임으로 인해 세상은 기독교가 이 문제에 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되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먼저 반성적 자세로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구 기독교가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 편승하여 폭력적 선교를 감행했던 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행히도 서구 신학계에서는 자신의 조상들의 침략적, 폭력적 모습을 반성적으로 조명하는 일이 많아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백 인종 차별의 정당성을 신학자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나서서 제 공해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던 찬란한 신학적 유산이 한순간 폭력적 죄악을 승인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어쩌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공신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들이 세계 공공신학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신학적 반성과 회개를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중 "상호맥락적 특성"이다. 만약 한국 기독교가 한국적 경험과

17 볼프강 후버,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18.

사고에만 머물게 될 경우, 자신이 따르는 기독교 신념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혁주의 사상이 폭력과 인종차별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서구에서 제 3 세계로 일방적 신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서로 배우기를 원한다. 나아가 모든 지역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신학 개념이 아닌, 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다양한 공공신학들(public Theologies)이 있을 뿐이다.<sup>18</sup>

한 지역의 갈등과 평화 문제는 이제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도 상호맥락적 특성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할 때, 한국 기독교의 경험은 이웃 국가의 기독교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 기독교에 평화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의 이미지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도록 도운 이미지가 강하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압제와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작금의 휴전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휴전의 기간이 80년에 가까워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다. 민족의 평화 통일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며 통일 담론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왜 통일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사명이기도 하다.

정작 분단의 긴장이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그 위협에 무감각한 반면, 세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발사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제와 결부 되어있다. 기독교의 시선으로 바라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한숙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닌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먼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sup>19</sup> 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방향성을 기독교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18 Dirkie Smit,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eds. Sebastian Kim and Katie Day (Boston: Brill, 2017), 85-86.

19 한숙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 『기독교와 통일』 14/1(2023), 77.

이를 위해 김경숙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면 모두의 인간성과 공동체가 붕괴되지만,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간성 유지와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용서하는 능력에는 타자를 향한 용서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용서, 공동체적 용서도 포함된다.”<sup>20</sup>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은 다양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기독교는 각 국가들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을 통해,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도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시아 기독교와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번영’(flourishing)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 3.2. 기후 위기

기후 위기는 현대의 전 인류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이다. 세계 기상 기구(WMO)는 금년 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고 발표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끝나고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 했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만큼 이 문제는 매우 빠르게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매년 큰 피해를 당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온실 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사실이 ‘기후 정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의 선진국에서 배출된다. 그러나 오히려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만을 배출한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10억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sup>21</sup>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이상 기온에 따른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뭄, 홍수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 내놓을 뿐이다. 정작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 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20 김경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용서 개념, 가치,” 『기독교와 통일』 14/1(2023), 92.

21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기후제약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2022), 6-7.

기후 위기는 자연 재해만 불러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간 기후 변화 협의체(IPCC)는 금세기에 곡물의 수확량이 10년마다 2%씩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곡물 수요는 10년마다 14%씩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식량의 부족 문제는 곧 기아와 내전의 문제로 확대되고 이를 피해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난민, 소위 '기후 난민'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sup>22</sup>

박정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2015년 시리아 내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흉작으로 인한 실업과 곡물 가격 상승은 반정부 시위를 불러 일으켰고, 유혈 진압에 의해 시민이 사망하자 내전으로 번졌다. 이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두고 정치적 갈등 상황에 빠졌으며, EU는 난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수정했다. 급기야 영국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이것은 브렉시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23</sup>

사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인류에게 청지기로 이 지구를 맡기셨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종종 이 명령을 사람이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 신념이다.

이 시대 대표적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John Stott)는 환경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지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답은 시편 24편 1절에 적혀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서 보듯이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땅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임차’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은 “협력적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통치’는 ‘과괴’와 동의어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자원을 맡기셨고, 우리는 자신의 이후 세대를 위해 그것을 책임 있고 생산적으로

22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281(2020), 6-7.

23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기후제약까지,” 7-8.

관리해야 한다.”<sup>24</sup>

트램퍼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 역시 창세기 1장이 “환경을 착취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 고 믿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설명하 면서 이 형상이 인간의 지위(status)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 의 소중한 피조물을 자비로운 통치자로서 돌보는 하나님과 같이, 그 지위를 받은 인간도 역시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봐야한다. 그는 “성경은 환경 손상을 인간의 죄와 연결시키는 한편 환경 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의 심판 및 구속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을 돌보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적한다.<sup>25</sup>

그러나 아시아 국가 안에서 기독교가 기후 위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실천을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은 결국 경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자주 언 급되는 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진한다고 할 때, 당분간 에너지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일반 가정에서 지 출하는 에너지 비용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스토트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생태학적 청지기직의 비 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게 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물론 그는 선진국의 독자를 염 두에 두고 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빈국에서는 적용하지 말자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하나의 지구를 함께 지켜야한다는 생각과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인해 애매하 게 고통 받는 빈국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기독교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성경적 근거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산시켜 그 추동력을 제공해 야하며,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빈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해결책 마련에 몰 두해야 한다.

### 3.3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다룬 두 주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분명 아시아 기독교가 이런 메타 담론에도 헌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24 존 스토트,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8), 170-76.

25 트램퍼 롱맨 3세, 안영미 역, 『성경과 현대의 공적 이슈』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292-93.

26 스토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183.

작은 범위에 한정된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도 기독교가 관심을 갖고 성경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펠릭스 윌프레드(Felix Wilfred)가 지적한 것처럼 “공공신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맥락을 고려한다.”<sup>27</sup>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가 매우 풍요롭고 종교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민주화되었지만 더 많은 국가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가 전혀 꽃 피우지 못하는 강력한 공산 독재 체제에 있기도 하다. 사실 공공신학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국가에서 어떻게 공공신학을 전개할 것인지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공론장의 기능이 약한 곳에서 기독교는 압제 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처럼 어느 정도 발전된 민주주의 구조와 넓은 공론장을 가진 국가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민주적 제도의 기초가 형성된 국가, 비교적 개방적인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에서는 군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정치체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발한 시민 사회체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sup>28</sup> 이밖에도 정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 계급 제도, 의료 체계, 공정 무역, 인권, 노동자의 기본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 4. 나오는 글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공공 영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독교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 루터 - 칼뱅으로 이어지는 두 정부 이론의 변천 과정을 통해 개혁과 전통이 기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설정하여 이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

27 펠릭스 윌프레드, “아시아 신학의 미래와 공공신학,” 펠릭스 윌프레드 외,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67.

28 로웨나 로빈슨, “아시아 공공신학: 사회학적 관점,” 펠릭스 윌프레드 외,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32-33.

이 명확하고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공통성에 조금 더 열려있으며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칼뱅은 이 두 정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 두 정부를 통치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처럼 개혁과 전통은 기독교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고유의 신념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비록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다섯 가지 모델이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개혁과 전통은 이 다섯 가지 모델 중에 '문화 변혁 모델'과 '역설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모델'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종종 '무례한 기독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신학적 태도'는 이러한 단점을 수정해 줄 수 있다. 공공신학은 세상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공공신학적 태도를 견지한 기독교는 세상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존중한다. 세상을 이런 태도로 대할 때, 비로소 문화 변혁 모델이 추구했던 세상의 변혁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세상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유될 수 없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 '기후 위기' 같은 주제에 천착해왔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공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 역시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기독교가 그동안 고민하며 찾았던 열매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는 그 누구보다 기독교가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족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를 위한 신앙적 결단은 이웃 국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은 민족 간, 계층 간, 성별 간, 종교 간의 화해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 위기' 문제는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관심 가져야 할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독교의 무관심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착취해오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기독교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 외에도 아시아 기독교가 관여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들은 산재해 있다. 아시아 기독교는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기여해야 한다. 특히 아직 민주화 되지 않았거나 공론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기독교는 특별한 방법으로 시민 사회를 도울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문을 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략적 연구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에 만족한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특색을 분석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찾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edford-Strohm, Heinrich,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_\_\_\_\_.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Zürich: LIT Verlag, 2018.

Kim, Sebastian C. H,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2011.

Luther, Martin,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Luther's Works*, Vol. 45, ed. Walther I. Brandt,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Smit, Dirkie,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eds. Sebastian Kim and Katie Day, Boston: Brill, 2017.

니버, 리처드. 홍병용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롱맨 3세, 트럼퍼. 안영미 역. 『성경과 현대의 공적 이슈』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반드루넨, 데이비드.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스토트, 존.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8.

윌프레드, 펠릭스.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후버, 볼프강.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김경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용서 개념, 가치," 『기독교와 통일』 14/1(2023): 91-127.

김민석.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37-75.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기후재앙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2022): 1-18.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281(2020): 1-10.

한숙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 『기독교와 통일』 14/1(2023): 59-89.



## 공적영역 논평

---

##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논평



**김은득 Eun-Deuk Kim**

미국 칼빈신학교 Calvin Theological Seminary  
edkim5@calvinseminary.edu

김민석 박사는 소논문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서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과 리처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룬 후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주제들, 가령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들을 논의한다. 김민석 박사는 “이 두가지 주제 외에도 아시아 기독교가 관여하고 고민해야할 주제들은 산재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연구범위를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문을 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공공신학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들에 천착해 있었다는 저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들에 기독교적 대안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섬기는데 있어서, 과연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이나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선어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먼저 김민석 박사는 평화를 다루면서 “전 세계는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정치, 세대, 성별, 종교 등의 갈등이 끊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대에 “평화”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용서 개념이 평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가 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 영역에 참여할 때,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이 무슨 실천적 함의가 있는가? 저자는 평화라는 이슈에 천착하면서 “두 왕국 이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현 시대의 아시아 지역에서 두 왕국 이론을 선이해하여 평화라는 이슈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 역시 평화라는 이슈를 다루면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평화 이슈를 다룰 때, 니부어의 5가지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었다면, 이 소논문에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가?

아시아의 기후 위기를 문제를 다루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문제는 공공신학에서 중요하기 다루는 이슈이다. 기후 위기를 다룰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두 왕국 이론”이 과연 선이해될 필요가 있는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겨났는가? 교회가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유형과 기후 위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심지어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은 크리스텐덤의 세계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인데, 지금 아시아의 기독교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이론인가? 루터와 칼뱅이 “두 정부, 교회와 정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왕국 이론이 적실한 이론인가? 저자의 말대로 “기독교인은 결국 세상과 격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할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나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부와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저 국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강조할 것인가? 차라리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을 제시한 후, 이것이 아시아 국가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 혹은 <두 왕국 이론>이 아니라면, 어떤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공공신학이 필요한지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다양한 이유로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공공신학이 필요하다.

평화나 기후 위기의 문제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다. 평화의 문제는 다양한 갈등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공신학적 성찰로 해결해야 한다. 기후 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자가 강조했듯이, 인간의 탐욕이나 경제 질서, 환경 문제, 인간론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룬 “두 정부 이론”이나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룬 “그리스도와 문화”가 설 자리가 애매하다. 아무리 저자가 강조한대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기독교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잘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요원하고 기후 위기는 심각해질 수 있다.



## 엠오 바이오

친환경 동물용 의약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66

대표 **임창희**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31-458-1240



## 이성일 치과

의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4 SME타워 5층

대표 **이성일**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2-558-2272



## 클라우드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49, 202호

대표 **이성중**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10-8874-3955



## (주)신세계FC

건물시설종합관리&호텔운영관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원길 10

대표 **한석구**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2-722-0426



## 한길 회계 법인

회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성원타워 13층)

대표 **김영일**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2-513-4530



## 더가족 문화사

인쇄, 제본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나길 27-6(1층)

대표 **최성암** 서대문교회 안수집사

번호 02-2278-6120





### 스트레치피트

운동재활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1길 9, 천성빌딩 3층

대표 **안기만** 서대문교회 안수집사

번호 02-571-5080



### 한사랑여행

여행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1 골든타워빌딩  
1203호

대표 **이승범** 서대문교회 안수집사

번호 02-392-1984



### 이삭토스트-서울경기대점

요식업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9 1층

대표 **한준희** 서대문교회 집사  
(**한병지** 서대문교회 장로)

번호 02-392-8942 / 010-2482-9388



### 정우사

디자인 기획 인쇄 홈페이지 구축 시스템 운영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 5-3

대표 **신기백, 신진이** 서대문교회 집사

번호 02-735-5436

토탈종합판촉물전문회사

# 주영산업

식품·사무용품·악세서리·가정용품·주방용품·레저건강용품·취향·상패·농수산품

■ 수입·수출대행 ■

- ◆ 식 용 품 : 건강보조식품, 교추장, 된장, 꿀, 참기름, 양파즙, 매실즙
- ◆ 사무용품 : 덩회의류, 세지회의류, 회의록, 볼펜, 다이어리, 카렌다, 수첩, 명함, 통장지갑, 원목다용도함
- ◆ 의세사리 : 지갑, 벨트, 민보기, 시계, 열쇠고리, 핸드폰줄, 뿔지
- ◆ 가정용품 : 구급함, 여행용품세트, 방한재, 손톱깎기, 공구, 지압, 비누, 저금통, 물통
- ◆ 주방용품 : 수저, 디스크, 일회용기, 기온, 허브집, 토자기, 용기, 주방용품세트
- ◆ 레저건강용품 : 우산, 타올, 티셔츠, 운동복, 모자, 가방, 골프용품, 양말, 장갑
- ◆ 화장품 : 명패, 트로피, 상패, 우송기, 넥타이, 손금상패, 조끼, 교패
- ◆ 농수산물 : 계절과일(매주, 자두, 사과, 배) 명치, 김

대표 이영규 장로 (한국·서인)

- 대한민국의 대표장로
- 전국장로연합회(전주)위원
- 서울지방장로연합회(종로)회장
- 서울노년회(종로)회장
- 서울노년회(종로)위원장
- 기독교장로회(종로)중앙회(종로)회장
- 한국(종로)회장(종로)
- 한국(종로)회장(종로)
- 한국(종로)회장(종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8, 101호  
전화 : 010-4265-6911 (02) 336-6911 FAX : (02) 336-6921  
E-mail: jy-company@hanmail.net

# 현대퍼니처

-장애인지정 조달업체-

교회, 관공서,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  
사무용 가구, 교구, 불박이용 가구  
인테리어설계시공

정지선 장로

면목중앙교회 사무장로  
수도노회 부회계  
전국주교수도권협의회 중경회장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46  
공 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72번길 40-9  
Phone: 010-4728-7800  
Tel: 02) 2209-0709 / Fax: 02) 491-0920  
E-mail: jung4girl@naver.com

Jasun Keumyoung Arvhitectural firm

# 자선금영 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건축시공

Jacobs Construction  
제이콥스 건설주식회사

“자신감, 노하우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기업정신

대표이사 조성탄  
서영교회 사무장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7-2 2F  
Tel.02)385-2088 Fax.02)6082-2088  
mobile.010-3291-8662  
e-mail: mercian21@hanmail.net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활 속의 풍요로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장 이종석 장로 (신원교회 사무장로)

하람건설(주)

하성건설(주) 하순건설(주) 하람체

인간중심을 실현하는 기업, 무결점에 도전하는 기업, 새천년을 선도하는 기업





# 더가족 서대문교회



더가족주일학교    장애인사역    통일선교    다솔방과후학원    서울기독교학교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

## 예배부흥 • 거목양성 • 세계선교

부 목 사 권용지 김항현 이동복 최성우 노태진 김형용 손요한  
 강 도 사 지재한 전도사 정혜원 최현 김단비 은퇴전도사 이근지

사무장로 김영환 류명선 한병지 서정광 이성일 서경철 이성중 한수남 김대하 한병하 한석구 박열 김영일  
 원로장로 안남영 서철수 서정준  
 은퇴장로 송창학 손득익 이덕림 이계홍 박원 허상만 김희경 김태수 이형남 임창희 송재기 송갑복 김영진 류중요  
 은퇴협동장로 남궁창걸

심 방 권 사 김경희 김선미 김일선 김정애 김종희 김혜원 박용미 유화연 윤영신 이기연 장순영 정연자  
 정인숙 최경자 하경미 한미옥 황순정

파 송 선 교 사 심바울 성은혜(베트남) 조준래 서주연(인도) 윤윤경(국내태국인) 이현우(일본)  
 성봉환 강진숙(국내외국인) 보아스 룻(AZ국) 정유선 비로수남(인도) 최민음 이사람(카자흐스탄)  
 진하람(국내선교국) 전하심 주향기(E국) 이진수 임은실(국내외국인) 박윤석 강영순(국내외국인)  
 허상만 권명숙(피지) 김이레 임지은(인도) 이태영 손혜정(국내본부사역) 서강태 박경희(일본)

장봉생  
 담임목사

